



영상미디어 등 온라인 콘텐츠가 활성화된 시대입니다. 도서관은 온라인으로 접근해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도서관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 가능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독서의 달, 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 등 더욱 광범위한 디지털 자원을 도서관에서 즐겨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vol.

315

2023. 09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JINZAKA

도서관은 다양한 디지털 컬렉션을 제공하며 이용자의 지식 세계를 넓혀줍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 종이책을 넘어 확장된 디지털 컬렉션과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도서관> 9월호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디지털도서관과 전자책을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3권 제7호 통권 315호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손효림, 이은경, 조선희, 배명희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부운디자인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04 오늘의 칼럼

지식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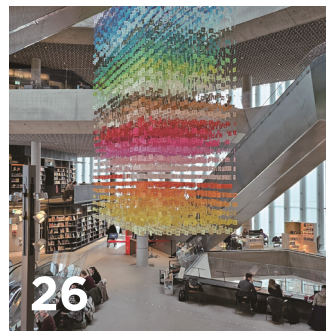
06 오늘 나의 도서관은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기
좋은 세상

10 일상을 펼치다

슬기로운
전자책 생활

도서관을 만나다



14 책 읽는 마음

독서의 달을 맞아,
마음의 양식을 쌓아봅니다

18 문헌의 가치

400년간의 스테디셀러,
《동의보감(東醫寶鑑)》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희망을 여는 노인친화도서관
'화성시립 송산도서관'

26 도서관 여행자

현대적인 도서관 디자인 모델
노르웨이 오슬로 공공도서관
'다이크만 뵈르비카'

30 도서관 트렌드

과거를 모아
현재를 이야기하는 도서관

공감을 펼치다



34 북데이터

풍요로운 요리와 맛의 향연
요리 관련 분야 대출 동향

36 오늘의 만남

맛으로 그리는 음식의 세계
요리사 김동기

40 K-인문학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생망 시대 현재의 소중함

44 고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와 괴물 고래
허먼 멜빌 《모비 딕》

48 오감독서

촉각과 청각이란 감각에 대하여
김보영 《다섯 번째 감각》

함께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일곱 번째 필사
허난설헌 <연밥 따기 노래>

59 오늘의 사진관

독서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t.or.kr

지식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도서관

글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소장

디지털도서관은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활용하는 디지털 자원의 모음이다. 전자적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고, 이용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에 접근한다. 디지털도서관은 인터넷의 역사만큼 오래되고 책만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자리잡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와 정보자원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필자가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의 대학도서관 시스템(ORION, MELVYL)과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시스템(DIALOG, BRS, Lexis/Nexis)을 처음 접했을 때, 정보검색의 편리함과 대량의 유용한 정보 수집에 감동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도서관, 온라인서비스는 출발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빠르게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진행했으며, 무엇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범적인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는 선도적인 주체가 되었다.



디지털도서관은 유익하다

이용자 입장에서 디지털도서관은 여러 매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인쇄물에 비하여 전자책, 전자저널, 오디오북, 비디오 강의 등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량의 컬렉션 구축이 가능하다. 둘째, 강력한 검색 도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국내외 도서관, 연구기관, 커뮤니티 간의 협력과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넷째, 디지털 아카이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발견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매체의 통합과 보존, 대화형 콘텐츠, 토론, 포럼 등 참여와 상호작용 확대, 신기술을 적용한 기존 콘텐츠의 가치 창출 등 디지털도서관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을 뛰어넘어 풍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광범위한 디지털 자원의 활용은 교육, 문화, 산업,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인터넷의 역사만큼 오래되고

책만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자리잡았다.


디지털도서관은 무한한 가능성이다

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프로그램, 기술적용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치 있는 지식문화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국립중앙도서관,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행된 출판물을 포함하여 원고, 희귀 서적, 영화, 지도 등의 정보를 다국어 형식으로 제공하는 세계디지털도서관(World Digital Library)이 있다. 6만 권 이상의 무료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 광범위한 도서의 원문과 색인을 검색할 수 있는 구글도서(Google Books), 전자책 및 오디오북,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전 문학 관련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대여하고 이용자가 자신만의 컬렉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오픈 라이브러리(Open Library), 수필, 백서, 과학 연구프로젝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Wiley Online Library)가 있다. 특히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은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서관 혁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이용성(Usability)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해 진화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도서관의 '무한한 가능성'은 여러 관련 분야의 노력을 요구한다. 저작권과 기술에 대한 고려사항, 안전하고 적절한 데이터 처리와 유지 및 관리, 제공되는 디지털 자원의 품질, 디지털 컬렉션의 업데이트와 장기적인 유지 관리, 자금 조달 등 매우 다양하다. 종이책의 감성을 반영하는 한편, 전자책의 이용편이성, 증강현실과 실감형 콘텐츠의 매력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은 도서관에도 혁신과 변모를 요구한다. 디지털도서관은 우리의 지식 세계를 확장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디지털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의 이용성(Usability)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기 좋은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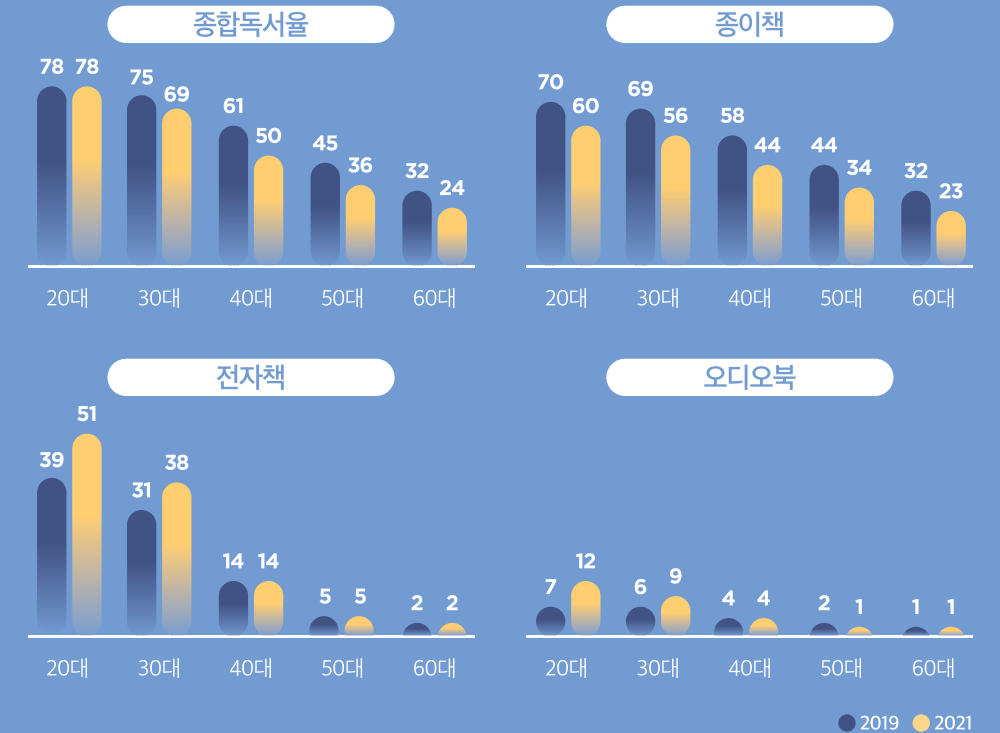
글, 사진 도영민 밀리의서재 즐거운독서생활(마케팅) 팀장



스마트폰 하나로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도 구독하고 읽는 세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종이책에서 확장되어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도 틈새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자유로운 독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독형 전자책 다독 대출자를 선발하기도 하고, 전자책 서비스 대출 권수를 확장하는 등의 이벤트를 펼치기도 합니다. 지금이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기 좋은 세상 아닐까요?

2019년과 2021년 매체별 독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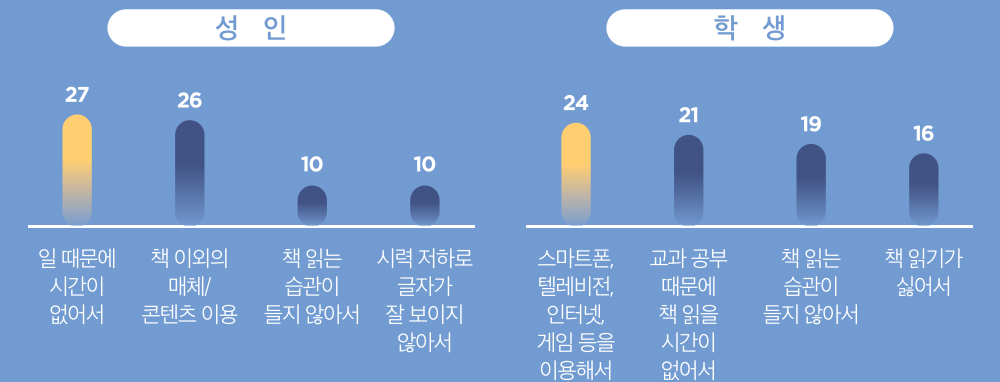
(성인, 연령별, %)



• 조사대상: 성인 6,000명 / 조사기간 및 방법: 2021. 09. 01.~11. 12., 대면조사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2. 01. 14.

독서 장애 요인(2021)

(성인/학생, 상위 4위, %)



• 조사대상: 성인 6,000명, 초등학교(4학년 이상)~고등학교 3,320명 / 조사기간 및 방법: 2021. 09. 01.~11. 12., 대면면접조사(성인)와 학교방문 자기기입식 조사(학생)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2. 01. 14.

2030 독서를 보완한 전자책·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성인의 독서율은 하락했지만 20~30대 젊은 층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용 증가로 2019년 대비 독서율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 말부터 전자책과 오디오북 중심의 독서 구독 서비스의 본격적인 확대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매체에 친숙도가 높은 2030에게 디지털 독서로 인한 독서 보완 효과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음원 구독 서비스가 그랬듯이 2030이 먼저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연령도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텐츠를 다양한 포맷으로 확장하다

독서를 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일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다른 콘텐츠를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을 비롯한 TV, 인터넷, 게임 등의 이용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왔으며, 학업으로 인해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건 어쩌면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적으로 보는 다른 영상이나 음악 콘텐츠보다, 책이 상대적으로 멀리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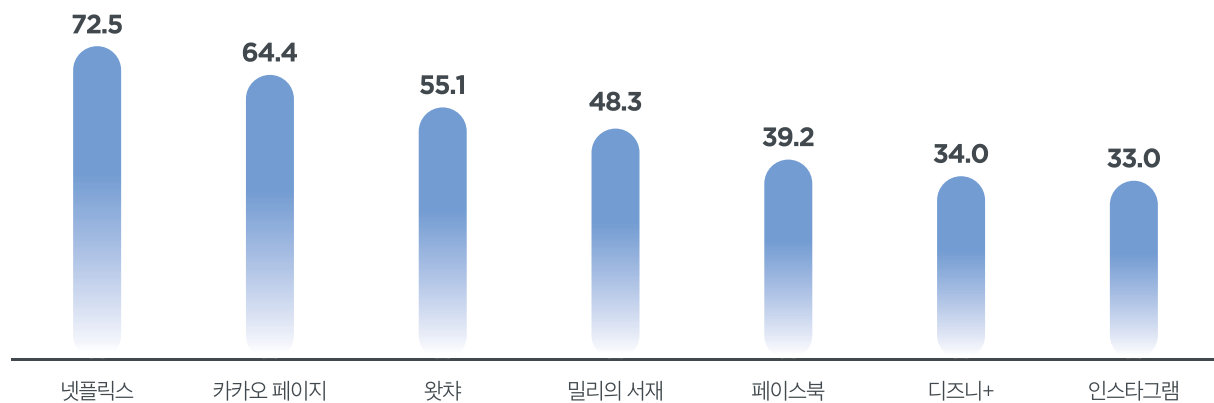


오브제북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독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점이나 도서관의 물리적 거리의 장벽을 낮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서 구독 서비스 플랫폼 M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1인당 일간 사용 시간은 글로벌 SNS 수준으로 사용할 정도로 구독자들은 독서와 가까워졌습니다. 태블릿, PC, 카오디오, 이북 리더기로도 디바이스의 최적화가 확장되고 있어서 독서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별 1인당 일간 평균 사용 시간

(단위: 분)



- 2022년 1~8월 기준, 1인당 일간 평균 사용 시간=해당 일의 총 사용시간/DAU
- 자료출처: 모바일인덱스 Insight 추정 데이터

영상, 음원 등 콘텐츠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독서율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콘텐츠 포맷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듣고 보는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가 익숙해지다 보니, 집중을 요구하고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좀 더 써야 하는 독서가 상대적으로 마음의 거리를 멀게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독서 구독 서비스는 사람들이 책을 소비하기에 조금 더 편하도록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로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시간 이상의 완독 오디오북보다는, 친숙한 셀럽이 읽어주는 '30분 요약 오디오북', 카카오톡의 구성으로 읽는 것에 익숙한 Z세대들을 위해 책을 대화 형식으로 편집 요약한 '챗북', 책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도슨트북', 그림책으로 만들어 멍 때리며 볼 수 있는 '오브제북' 등이 바로 그 시도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구독자들과 독서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로 책을 발견하고, 종이책을 구매하는 선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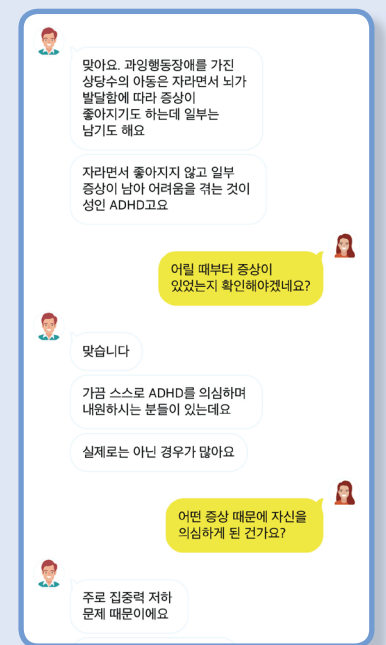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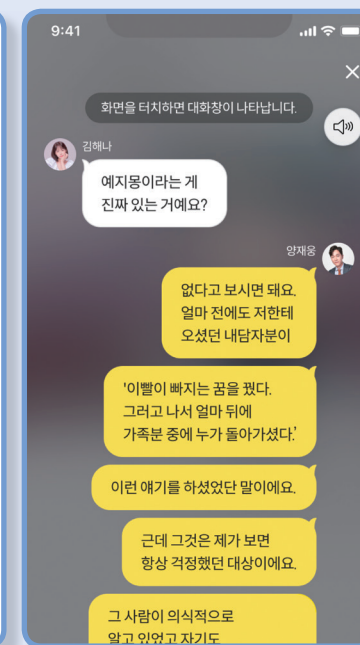
독서 구독 서비스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초기에는 독서와 멀어졌던 구독자들의 유입이 비교적 많았고, 지금은 그러한

구독자들이 새로운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독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유익한 현상 중 하나는 '구독 서비스에서 책을 발견하고 종이책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서 구독 서비스가 생기기 이전에는 서점에 가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만 책을 고르고 구매를 하였다면, 지금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책을 둘러보고, 종이책으로 구매하고 싶은 책들은 따로 책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심심치 않게 전자책 구독 앱을 켜놓고 책을 고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는데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자책 구독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측정과 트래킹(Tracking)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단순 활자를 읽는 행위를 넘어서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개인 취향에 맞는 도서 추천이 가능하며, 독서 활동을 기록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더 쉽고 편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강점을 활용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독서율을 보완하고,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 수 있는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



도슨트북



챗북

슬기로운 전자책 생활

글 이주영(부운디자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가 도입된 이후 전자책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IT 기기를 많이 이용하는 MZ세대에게 큰 관심을 끌며 새로운 독서패턴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전자책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일까? 물리적으로 가볍고 편리하며, 종이책보다 저렴한데다 책 보관에도 문제없다. 이러한 전자책으로 다채로운 독서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이하여,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전자책 생활’을 소개한다.

지나친 배움을 만류했다. “내가 그렇게 비통해했는지? 하지만 꼭 동안 사람을 위해 비통해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할지?”

죽을 앞에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물론 의 입자가 타에게는 정말 그대 잘못도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제자들의 실명과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불행이 그를 만일이 슬프게 만들었지만 모든 것을 놓아버릴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배려가 없었지만 배려할 수 없는 사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의 단점이 불행으로만 제재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저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무한한 기쁨을

같이 지켜보았다. 『시경』의 시를 전할 때의 눈치를 떠올려보자. 이제 글자가 읽혔다. “자살아, 비록은 이제 내가 나와 지름이 지를 눈치를 수 있었구나. 잘 가라.”

나 한 가지를 몰아내는구나!” “아니, 나는 글자는 자신의 비애를이까지 못해 일정한 제자를 바라보면서 무명화도 배울 수 있는 제자처럼 또는 제자를 느꼈을 것이다.

문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파악되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며 자아도해하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 현실이 표현하고 있다. 문제가 제나라에서 보편적인 정식으로 알려진 수필단에서 보고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 현실은이 제 실 동안 고기 양을 이 현실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새로운 독서를 경험하는 전자도서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예스24 전자도서관



알라딘 전자도서관



북큐브 전자도서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맞춤 콘텐츠



두루책방



한국고전종합DB

전자책을 서비스해주는 대표적인 전자도서관 앱으로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등이 있다. 먼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은 도서관별 콘텐츠가 자동 관리되며, 퀄리티 있는 전자책을 제공한다. 또한 배경색, 밝기 조절을 통한 시력보호 기능과 글자 종류, 크기, 페이지 넘김 방식 등 다양한 설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스24 전자도서관’은 내 서재에서 모든 대출 도서를 모아보고 관리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이미지로 공유할 수 있다. 또 출근길, 운동 중, 잠들기 전에 글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TTS(Text To Speech)로 독서가 가능하다.

‘알라딘 전자도서관’은 문단 간격과 정렬, 여백 설정 등 상세한 뷰어 설정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구독형 전자책, 오디오북 서비스도 지원한다.

‘북큐브 전자도서관’ 역시 오디오북까지 동시 이용 가능하며, 중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형광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다른 전자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또한 인터파크 전자책 회원이라면 구매한 전자책을 북큐브로 이관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도서관 앱은 초·중·고·대학, 기업의 전자도서관이나 지역·공공도서관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자도서관 앱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도서관이 다를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도서관을 검색한 후 원하는 전자책을 대출하면 된다. 회원이 아닌 도서관일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목적이 분명한 이들에게 맞춤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느린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두루책방’과 고전문헌 연구자와 일반인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종합DB’이다.

‘두루책방’은 (재)도서문화재단씨앗과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누마가 함께 만든 이북 콘텐츠로 총 6단계로 된 124권의 한국어책과 84권의 다국어책까지 총 204권의 책이 들어 있다. 따라서 단계별로 여러 수준의 책을 골라 읽거나 동물, 과학, 음식, 생활, 자연, 역사, 모험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로 같은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책 전체를 읽어주는 기능과 읽고 있는 부분을 짚어 주는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느린학습자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두루책방의 모든 책은 파일로 다운받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

‘한국고전종합DB’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만든 콘텐츠로 200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9억여 자의 텍스트와 78만 장의 이미지, 500만 건의 메타데이터 등 방대한 규모의 한문 고전문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고전번역서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역사문헌이 구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전원문과 각주 및 서지정보 검색, 고전문헌 해제자료 등 특화된 콘텐츠를 서비스해 우리 고전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웹과 모바일 기반 모두 열람 및 검색을 지원한다.

영어원서,
누구나 알차고 재밌게



EBS 펀리딩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유료 콘텐츠 못지않게 수준 높은 영어원서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 콘텐츠를 소개한다. 먼저 다양한 영어원서를 언제 어디서든 재미있게 읽고 싶다면 'EBS 펀리딩'을 추천한다. 펀리딩에서는 원어민 음성 지원과 수준별 맞춤 음성(속도) 서비스를 통해 통합적인 영어 학습을 지원한다. Reading룸에서는 초·중·고 등급 9단계에 따라 영어원서 500권을 통해 다독 학습이 가능하며, Learning룸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 주요 단어와 문장을 익힐 수 있도록 8종류의 학습 모듈을 제공한다. 특히 영어 홈스쿨링을 원하는 부모라면 아이들의 책 읽기 레벨테스트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파닉스부터 만화, 비소설까지 다양한 영어원서를 PC와 모바일에서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다.

유명 세계문학과 교양서적 등의 영어원서를 보다 편리하게 읽고 싶다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를 이용하자. 인쇄술을 혁신한 인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도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7만 권 이상의 무료 전자책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 저자, 제목, 주제, 언어, 유형 등으로 원서를 검색할 수 있으며,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된다면 상위 100위 또는 인기도별 순위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

나에게 맞는 전자책 단말기 고르기



언제 어디서든 독서를 하고 싶다면

출퇴근 시 가벼운 독서를 즐기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만 한 게 없다. 스마트폰은 휴대성이 가장 뛰어나

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화면이 작아서 작은 글씨를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나 삽화가 많은 책이라면

종이책과 비슷한 크기의 화면,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 PC. 만화책이나 동화책 등 이미지, 삽화

가 많이 들어간 책을 읽을 때 편리하다. 필기 기능이 있다면 펜을 활용해 메모하거나 독서기록을 정리하기 좋다.



독서 습관을 꾸준히 기르고 싶다면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싶은 분들에게 이북 리더기를 추천한다. 눈이 편안하며 오직 책만 읽는 기능

으로 다른 기기보다 집중력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책을 불러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다면

집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큰 화면으로 전자책을 보기에는 PC가 적합하다. 단 PC용 전자책 뷰어를 따로 설

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글자를 크게 볼 수 있어 시력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동에 제약이 있다.

도서관을 만나다



14 책 읽는 마음
독서의 달을 맞아,
마음의 양식을 쌓아봅니다

18 문헌의 가치
400년간의 스테디셀러,
《동의보감(東醫寶鑑)》

26 도서관 여행자
현대적인 도서관 디자인 모델
노르웨이 오슬로 공공도서관
'다이크만 보르비카'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희망을 여는 노인친화도서관
'화성시립 송산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과거를 모아
현재를 이야기하는 도서관

독서의 달을 맞아, 마음의 양식을 쌓아봅니다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문학
미래과거시제

배명훈 지음 |
북하우스 | 2023

“분노, 절망, 역겨움, 공포, 불안, 우울 같은 태초의 감정은 묘하게도 노력이나 수고와 관련이 있었다. 몸을 생존으로 이끌려는 마음은, 회피하고 도망치고 반격하고 대비하는 등의 수고로움을 동반한 것들이었다. ‘수고하는 기계’인 로봇에게 이 영역의 감정이 최초의 마음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31쪽)

사서의 추천 글

현실적 한계를 벗어던진 사고실험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어떤 SF소설은 사실주의 소설보다도 더 정확히 현대 사회를 짚어내고 더 깊숙이 인간을 탐구한다. 시간과 공간을 횡으로 종으로 자유롭게 가로지르며 창의적인 모험을 함께하다 문득 돌아보면 읽는 이의 내면을 고스란히 비추는 소설집이다. 이 책에서는 기발하고 흥미로우며 가끔은 엉뚱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9편의 SF 단편소설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를 낯설게 바라보게 만드는 <차카타파의 열망으로>와 <미래과거시제>는 언어를 탐구한 SF다. <임시 조종사>는 판소리로 쓰인 로봇 전투물로 이질적인 두 요소를 신명 나고 맛깔나게 버무렸다. 각각의 작품 끝에 달린 작가 노트는 마치 서면으로 나누는 북토크 같다. 무더운 여름밤, 갈증을 달래주는 시원한 맥주와 완벽한 페어링을 보여주는 책. 아득한 미래와 머나먼 우주를 유영하는 놀랍고 지적인 모험, 이 책과 함께 경험해보지 않을 텐가.

저자 소개 배명훈

한국의 SF 작가. 2005년 SF 공모전에 단편소설 <스마트 D>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타워》, 《안녕, 인공존재!》, 장편소설 《신의 궤도》, 《은닉》, 에세이 《SF 작가입니다》 등을 썼다. 2010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다.



국외문학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셀비 반 펠트 지음 | 신솔잎 옮김 |
미디어창비 | 2023

“그런데 왜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에게 속 시원히 말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수백만 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80쪽)

사서의 추천 글

아쿠아리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평범한 듯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쿠아리움에 살고 있는 지능이 뛰어난 문어 ‘마셀러스’와 70세 야간 청소부 ‘토바’가 있다. 문어 마셀러스가 수조를 탈출해 모험을 즐기다 역경을 맞이한 순간 청소부 토바가 마셀러스를 구해준다. 이후 이들은 종의 차이를 넘어 친구가 된다. 살날이 불과 1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생의 끝자락에 있는 문어가 소중한 인간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씨실과 날실처럼 연결하며 펼쳐진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찾으러 온 이방인 ‘캐머란’, 오지랖 넓은 슈퍼마켓 사장 ‘이선’과 패들숍을 운영하는 ‘에이버리’ 등 인물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문어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삶은 이상하면서도 사랑스럽다. 문어 ‘마셀러스’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가 인간에게 전하는 따끔하지만 따뜻한 격려를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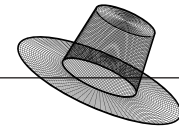
저자 소개 셀비 반 펠트(Shelby Van Pelt)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저자는 현재 남편, 두 아이와 함께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다.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은 2022년 5월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아마존에서 뽑은 올해의 책, 굿리즈 2022 최우수 소설상 후보에 올랐다.



인문예술
모자의 나라 조선

이승우 지음 |
주류성 | 2023



“조선의 모자는 단발령이 초래했던 복식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한 채 서서히 이 땅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345쪽)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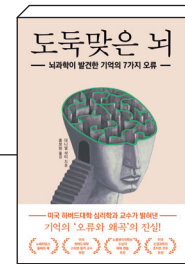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시즌2> 포스터를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는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의 출연진들은 왕비 역부터 좀비 역까지 다양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많던 모자들이 지금은 왜 사라졌을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 모자의 기원, 종류 및 쓰임을 다채로운 시각 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한 ‘모자 역사서’이다. 조선시대의 모자에는 신분 사회와 유교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왕족의 화려한 모자, 양반의 정갈한 모자, 그리고 서민의 실용적인 모자가 각각 다르다. 유교의 여러 제례는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발달시켰고 특히 조선의 대표적 모자인 ‘갓’에는 성리학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갓과 관련된 문화공정의 파고가 높은 요즘, 갓의 기원과 제작 방식, 유행의 변화 및 숨겨진 의미까지 다각도에서 그 의미를 밝혀준다는 점에 이 책의 시의성이 있다.

사극과 영화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모자에 익숙하지만, 그 뿌리와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비록 근대화의 거센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종류가 사라져버렸지만, 약 500여 년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즐거움을 주었으니 조선의 모자는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까.

저자 소개 이승우

역사학자이자 인문학자. 한국 역사학회, 한국 근현대사학회 회원이다. 대표작으로 《시베리아의 별, 이위중》과 《전쟁, 굶주린 일본 두려운 한국》 등이 있다.



인문예술
도둑맞은 뇌: 뇌과학이 발견한 기억의 7가지 오류

대니얼 샹터 지음 | 홍보람 옮김 |
인물과사상사 | 2023



“우리 본성의 여러 요소 중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훌륭하다고 여길 만한 능력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의 힘, 기억의 실패, 기억의 불일치에는 우리 지능의 다른 어떤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380쪽)

사서의 추천 글

기억은 고정적일까? 앨범 속 사진처럼 원할 때면 언제든 항상 같은 기억을 불러올 수 있을까?

인간의 기억은 카메라가 아니기에 일어난 일을 고스란히 기억하지 못하고 핵심만 기억할 뿐이다. 그것도 모자라 가끔은 왜곡하기도 한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허둥지둥하고, 비밀번호를 잊어 로그인을 못 한다. 또한 겪어 보지 않은 일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철석같이 믿기도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경과학 연구가 밝혀낸 기억의 일곱 가지 오류를 소개한다. 기억의 오류를 다룬다고 해서 인간의 결함을 확대하고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기억이 어떤 적응력을 가졌는지, 지금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렇게 발달했는지 알아가면서, 시간을 뛰어넘게 해 주는 기억의 힘과 소중함을 은은하게 느껴보면 어떨까.

저자 소개 대니얼 샹터(Daniel L. Schacter)

미국 하버드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인간 기억의 인지적 측면과 신경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주된 분야는 기억, 기억상실증, 기억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신경심리학적 분석이다. 최근에는 기억 왜곡의 뇌 기제와 인지, 신경영상 등을 연구하고 있다. 《도둑맞은 뇌》는 출간 당시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으며 미국 심리학회와 윌리엄 제임스 도서상을 수상했다.

외로움 수업

외로움 수업: 온전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에 대하여

김민식 지음 | 생각정원 | 2023

“삶의 조건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 연민하고 다독이는 일이 참 중요해요.”(53쪽)

사서의 추천 글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수시로, 외로움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가던 저자 역시 한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후 스스로 고립의 시간을 선택하며 외로움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책은 갑작스레 다가온 고립과 나이 오십에 찾아온 실직,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노후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의 시간을 갈무리한 저자의 경험과 통찰을 전해준다.

저자에 의하면 외로움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외로움을 괴로운 감정이라 여기고 외면한다면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척박해질 뿐이다. 하지만 외로움의 시간을 지난 상처를 돌아보며 다시 용기 내는 시간으로 여긴다면 인생을 더 풍요롭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문득 찾아온 외로움에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공감해주며 더 나아가 현실적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자 소개 김민식

공대 졸업, 제약회사 영업사원, SF소설 번역가, MBC PD, 유튜브 운영자, 강연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 주요 저서로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매일 아침 써봤니?》,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등이 있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

기후를 위한 경제학: 지구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모색하는 생태경제학 입문

김병권 지음 | 착한책가게 | 2023

“지구의 한계선에 직면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기존 방식의 삶을 포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안전한 삶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한계선을 정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363쪽)

사서의 추천 글

기후 위기의 시대에 맞는 ‘기후를 위한 경제’는 무엇일까? 2022년 8월 파키스탄 대홍수처럼 기후재난을 수습하는 비용이 경제성장의 이익을 초과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보니, 무한 성장의 불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비록 경제성장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강력한 안정화 메커니즘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학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생태경제학 입문서 《기후를 위한 경제학》 1장은 생태경제학의 역사, 2장은 경제학의 생물리학적 기초, 3장은 경제의 무한성장문제, 4장은 ‘정상상태 경제’, ‘도넛경제’, ‘탈성장 경제’ 등으로 제시되는 생태경제학, 5장은 생태경제학의 분배정책으로 구성되어있다. 책 속의 방대한 참고정보와 간결한 설명은 생태거시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경제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준다. 그리고 저자는 기후 위기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지만 인간은 ‘사적 충분성’과 ‘공적 풍요로움’을 선택하여 ‘딱 찬 세상’ 속에서도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지구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모색하고 싶고, 현재의 선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 소개 김병권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이다. 지은 책으로 《진보의 상상력》,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사회적 상속: 세습사회를 뛰어넘는 더 공정한 계획》, 《사회혁신》 등과 다수 공저가 있다.

한 권으로 읽는 미생물 세계사

한 권으로 읽는 미생물 세계사

이시 히로유키 지음 | 서수지 옮김 | 사람과나무사이 | 2023

“사실 우리 몸에도 ‘상재균’이라 부르는 미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상재균 대다수는 인류보다 훨씬 오랜 진화 역사를 자랑한다. 상재균은 이름 그대로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 서식하는 세균이다. 우리 몸 거의 모든 곳에 산다고 볼 수 있다.”(149쪽)

사서의 추천 글

코로나19 이전에 코로나 시대를 경고한 책이 있다. 《한 권으로 읽는 미생물 세계사》는 다양한 유행병, 바이러스 그리고 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2013년부터 2년간 저자가 인터넷 매거진에 연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췌한 것으로, 마치 코로나 시대를 예견한 듯한 내용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생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였다. 페스트는 중세 사회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천연두 바이러스는 아즈텍 문명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미생물이 질병을 퍼뜨리는 원인이 됐음을 알게 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삼림 파괴, 산업화, 도시의 비위생적인 환경, 공장화되어 대량 생산되는 돼지고 닭 사육 현장과 같은 문제들은 바이러스가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인간을 숙주 삼아 번식하는 배경이 되었다.

미생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인류는 미생물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감염병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옆의, 우리 안의 미생물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이시 히로유키(石弘之)

도쿄대학교를 졸업한 후 아사히 신문에 입사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FAO)의 보어마(Boerma)상, 국제연합 글로벌 500상, 마이니치 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지구 환경 보고》, 《나의 지구 편력》, 《철조망의 역사》 등이 있다.

언어의 시간

언어의 시간: 길 잃은 물고기와 지구, 인간에 관하여

마크 쿨란스키 지음 | 안기순 옮김 | 디플롯 | 2023

“하지만 원주민은 자연 세계와 인공 세계로 분리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심지어 많은 북아메리카 언어에는 자연을 뜻하는 단어조차 없다. 단순히 하나의 세계가 있을 뿐 분리된 세계로서 자연은 없다.”(175쪽)

사서의 추천 글

우리가 식탁에서 즐겨 찾는 언어가 지구 환경의 생존 지표였다!

이 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언어의 속명부터 언어와 관련된 지구 곳곳의 신화, 인간과 언어가 공생하던 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돌아갈 곳을 잃은 언어, 언어 수를 늘리려는 인간의 노력, 이야기 중간중간 언어 요리법까지, 가히 언어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생의 시작과 마감은 강에서 그리고 나머지 시기는 바다에서 보내는 언어를 주제로 인간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육지와 바다의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에 걸쳐 있는 언어의 삶을 통해 기후 환경,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구의 미래 등 언어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게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지구 환경의 중요 지표인 언어 이야기를 통해 “언어가 살아남지 못하면 지구 또한 생존할 희망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서 일상 속 언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인류와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마크 쿨란스키(Mark Kurlansky)

버틀러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극작가, 어부, 항만 노동자, 요리사 등 여러 직업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1997년 발표한 《대구》가 뉴욕시립도서관 선정 ‘최고의 책’에 오른 후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데이턴문학평화상, 제임스비어드상, 앙드레 사이먼상 등을 수상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400년간의 스테디셀러, 《동의보감(東醫寶鑑)》

글 한지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01



1999년에 방영된 드라마 <허준>이 최고 시청률 63.5%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었다.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 허준의 삶을 그린 사극으로,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2003년에는 <허준>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구암 허준>이 방영되기도 했다. 드라마에서는 허준이 유배지에서 우리 백성에게 맞는 약재와 의술을 통해 심신의 치료를 하는 꿈을 이어간다. 그 꿈이 바로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은 당시 의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의보감》은 어떠한 가치를 지녔으며, 그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동의보감(청구기호: 한貴古朝68-3)》을 통해 살펴보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질의 민원을 받는
고문헌 중 하나는
단연코 《동의보감》이다.

- 01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동의보감》
- 02 백구시(개똥)에 대한 내용이 적힌 원문
- 03 추어(미꾸라지)에 대한 내용이 적힌 원문

《동의보감》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운 질문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질의 민원을 받는 고문헌 중 하나는 단연코 《동의보감》이다. 《동의보감》의 서지적 특징이나 판본에 대한 질문부터 원문서비스 이용법에 대한 문의까지 질문의 내용도 다양하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1. 탕액편 내에 백구시(개똥)를 약재로 썼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白狗屎

主丁瘡, 癰瘡, 及諸毒. 《本草》

今治心腹積聚, 及落傷瘀血不下. 燒存性, 和酒服, 神效. 《俗方》

해석 백구시(개똥)

정창(丁瘡)과 누창(癰瘡)의 모든 독을 주로 치료한다. 《본초》

가슴과 배의 적취(積聚, 뱃속에 결괴(結塊)가 생겨 항상 배가 더부룩하거나 아픈 병증)나 떨어져서 다쳐 생긴 어혈을 다스리니 소존성(燒存性, 겉은 숯처럼 거뭇지만 속은 누런 기운이 있도록 태우는 것)으로 태워서 술에 타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 《속방》

질문2. 《동의보감》에 나오는 미꾸라지의 효능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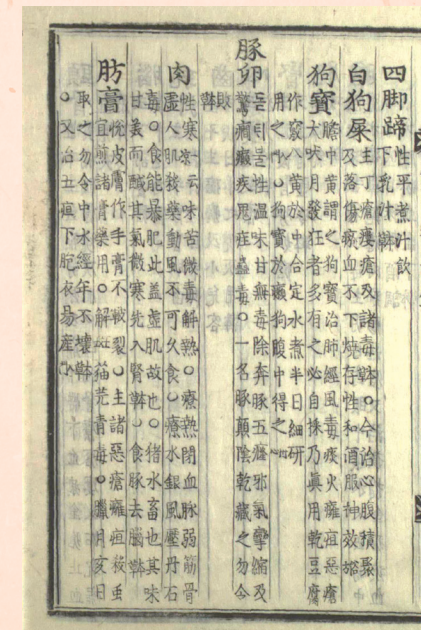
답변 鰍魚

미꾸리 性溫, 味甘, 無毒. 補中止泄. 形短小, 常在泥中, 一名鰍魚. 《入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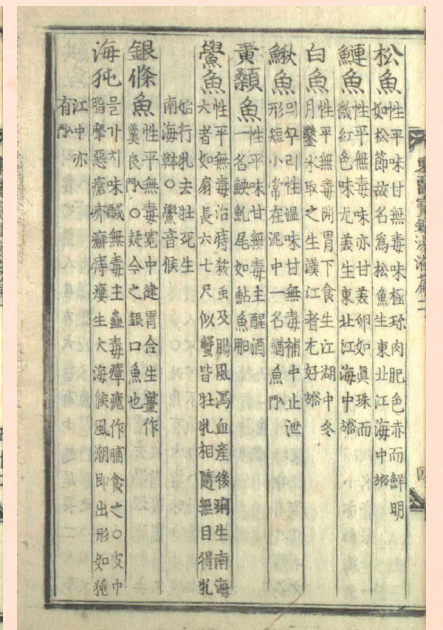
해석 추어(미꾸라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중기를 보하고 설사를 멎게 한다. 몸이 짧고 작으며 늘 진흙에 산다. 추어(鰍魚)라고도 한다. 《입문》

02



03



아직도 《동의보감》에 대한 질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쓰임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의보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은 선조 30년(1597) 어의 허준(1539~1615) 선생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하나로 모아 편집하여, 광해군 2년(1610)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한 의학 서적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만력41년(萬曆四十一年(1613)) 11월 일(十一月日) 내의원(內醫院) 봉교간행(奉敎刊行)'이라는 인출기(印出記)와 '만력42년(萬曆四十二年(1614)) 2월 일(二月日) 내사(內賜) 동의보감(東醫寶鑑) 1건(一件) 오대산상(五臺山上) ... 좌승지(左承旨) 신(臣) 이(李) [수결(手決)]'이라는 내사기(內賜記)가 있다. 즉, 1613년에 간행하여 1614년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에 내사(內賜)한 것이다.

이후 《동의보감》은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도 광범위하게 유포·간행되어 동양의학의 필독서가 되었다.

《동의보감》의 가치와 의미

총 25권 25책으로 목할자 가운데 내의원자(內醫院字)로 간행하였다. 내용은 목록 2권, <내경편(內景篇)> 4권 26조, <외형편(外形篇)> 4권 26조, <잡병편(雜病篇)> 11권 38조, <탕액편(湯液篇)> 3권 17조, <침구편(鍼灸篇)> 1권 1조 등 모두 25권 108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전개 방식은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 등의 5대강(大綱)을 기준으로 각기 세부 분류한 다음 해당하는 병의 이론과 처방을 기록하고, 그 출전(出典)을 밝혀 각 병의 증상에 관한 처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동의보감》은 조선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도 광범위하게 유포·간행되어 동양의학의 필독서가 되었다.

1613년 간행된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3종이 1991년에 보물로 지정되었고, 2015년 문헌사적, 서지적 가치를 인정 받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동의보감》을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손상·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도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지 영인본을 원본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전시와 열람에 활용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하면 원문 DB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원문 텍스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다. 《동의보감》뿐 아니라 《경국대전(經國大典)》, 《자산어보(玆山魚譜)》, 《황화집(皇華集)》 등 한국인 저술 및 한국에서 발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텍스트 기반의 원문 데이터(Full-text)를 구축하여 고문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9년 7월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Barbados)의 수도 브리지타운(Bridgetown)에서 개최된 제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동의보감》이 세계적 중요성, 고유성, 대체 불가능성을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의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이바지한 경우에 선정된다. 《동의보감》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학 지식을 종합하고, 일반 백성을 위해 혁신적인 공공 의료 사업을 수립·실행한 사례로 그 의의와 중요성은 세계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는 서양의 경우 19세기에 와서야 도입되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동의보감》을 편찬한 이유는 일반 백성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책임감에 있다. 나아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와 쉬운 말로 풀어쓴 간단한 치료법으로 평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적으로 몰두한 편찬사업은 사실상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고 등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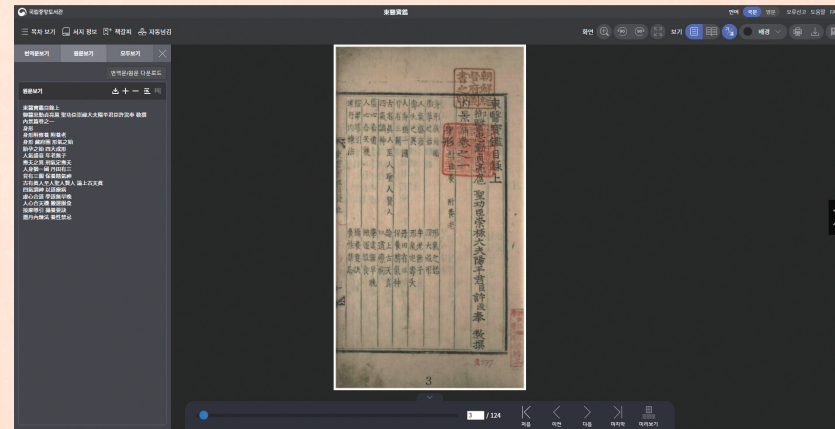
고문헌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

《동의보감》은 이처럼 그 내용뿐만 아니라, 서지적·문헌사적으로도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동의보감》을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손상·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도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지 영인본을 원본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전시와 열람에 활용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하면 원문 DB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원문 텍스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다. 《동의보감》뿐 아니라 《경국대전(經國大典)》, 《자산어보(玆山魚譜)》, 《황화집(皇華集)》 등 한국인 저술 및 한국에서 발행된 자료를 중심으로 텍스트 기반의 원문 데이터(Full-text)를 구축하여 고문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의보감》의 편찬에는 그 이전에 간행된 의서(醫書)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의방유취(醫方類聚)》, 《의림촬요(醫林撮要)》를 비롯해 중국의 한(漢)·당(唐)나라 이래 명(明)나라까지의 의방서가 도움이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문헌 서비스도 현대에 창작되는 새로운 콘텐츠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❷



- 04 대중이 쉽게 사용 가능한 의학지식을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의서 《동의보감》
- 05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원문 텍스트 이용 화면



도서관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를 향유하다

희망을 여는 노인친화도서관 ‘화성시립 송산도서관’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화성시립 송산도서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질병인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마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어르신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거듭난 화성시립 송산도서관을 찾았다.

지역주민에게 열려 있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화성시 서부권역의 대표 독서문화기관인 송산도서관은 문화 인프라가 전무한 화성시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 주민들의

지식정보문화 보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송산도서관은 연면적 3,907m² 규모의 단독 5층 건물로 2012년 6월에 개관했다. 지하 1층에는 보존서고와 방재실, 지상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실버자료실이 있으며,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전자정보자료실, 3~4층에는 사무공간과 열람실, 이용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산면은 포도의 고장이며, 천연기념물인 공룡알화석산지가 있다. 지역 특색인 ‘포도’와 ‘공룡’을 특화 주제로 삼은 송산도서관은 공룡 조형물이 도서관 입구와 내부 곳곳에서 주민들을 맞이하며, 포도와 공룡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송산도서관은 2019년 12월 화성시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약 1만 명의 인구 가운데 70%인 7,000여 명이 50세 이상’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것이다.

장서는 비도서 포함 약 9만 권이며, 특화주제인 ‘공룡, 포도, 치매’ 관련 도서는 약 1,200권을 별치하고 있다. 2013년에 특수시책 사업인 ‘도서관 속 미술관’을 추진하여 계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시대별 서양 미술 사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성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정기적인 공연 프로그램(도서관 속 공연장)을 운영하는 등 특색있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산도서관 특화주제(공룡, 포도, 치매) 별치 서가



‘치매 바르게 이해하기’ 수업

삶의 가치를 높이는 치매 친화적 프로그램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치매’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 가능한 치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송산도서관의 목표다. 올해 송산도서관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성황리에 운영하였다.

먼저 6~7월에는 지역 노인보건센터 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그림책 심리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회에 걸쳐 진행된 이 과정은 그림책을 읽고 그림을 통해 내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7~8월에는 치매환자의 보호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 바르게 이해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나는 치매 할머니의 보호자입니다》를 집필한 박소현 작가가 강사로 참여해 더욱 생생한 강의를 이끌었다.

9월 독서의 달에는 치매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풍성한 치매 특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치매 가족을 돌보는 일반인에게 꼭 필요한 심화 과정을 다룬 ‘치매 돌봄 실전’(8월 31일~9월 21일), 치매 가족과 일반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치유 음악회’(9월 23일), 일반인도 쉽게 치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는 ‘치매극복 도서 전시’(9월 1일~9월 27일) 등이 열릴 예정이다.

서예 교실에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응봉 동아리

송산도서관에는 지역주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실버자료실’이다. 실버자료실은 이름에 걸맞게 개관 시부터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십분 살린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서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서예 교실에서 ‘응봉 동아리’ 회원으로서 소속감을 다지며, 열심히 서예를 배운다. 동아리 회원 수는 28명 정도인데, 매일 서예 교실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제각각이다. 서예 교실은 서예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으며, 동아리 또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본인의 자리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하며 한자를 써 내려간다. 서예 교실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취미 활동으로 꿈을 펼치는 공간이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랑방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다. 송산도서관 1층 로비에는 응봉 동아리의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실력으로 직접 쓴 서예 작품들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한창 서예 수업 중인 어르신 이용자들

지역 문화예술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노력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이 노년층이다 보니,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 이에 송산도서관은 줄어드는 청년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 수요를 파악해 맞춤 기획을 펼치는 등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10월 문화의 날을 기념하는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도서관의 물리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서관 속 공연장>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하며, 쉽게 만나기 힘든 명사 초청, 국악 공연, 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송산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지역 문화예술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어린이자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의지를 밝혔다. 지역주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송산도서관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



치매 바르게 이해하기 참여자
오재묵 님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방문했는데, 치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듣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4주차 강의라서 마지막 수업까지 열심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치매 바르게 이해하기 참여자
김경화 님

“저는 치매 환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치매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 중기로 접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치매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됐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였고,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유익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귀에 쏙 들어와요. 배운 내용은 집에 가서 직접 따라 해볼 예정이에요.”

LIBRARY INFORMATION

화성시립 송산도서관

- 이용** 어린이자료실
평일/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종합자료실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위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일공원로 87
- 문의** 031-355-5798





현대적인 도서관 디자인 모델 노르웨이 오슬로 공공도서관 ‘다이크만 뵈르비카’

글, 사진 조금주

오페라하우스, 뭉크 박물관, 오슬로 중앙역, 그리고 오슬로 피오르드 해변이 인근에 있어 주변 전체가 매력적인 도서관이 있다.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 공공도서관 ‘다이크만 뵈르비카’다. 이 도서관은 입구가 있는 광장 바로 위 65피트 높이로 튀어나온 인상적인 캔틸레버(Cantilever)¹⁾와 수많은 창문, 3개의 거대한 기하학적 채광창 등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어 건축학적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혁신적인 시설과 완벽한 시스템까지 더해 현대적인 도서관 디자인의 모델로 일컫는 다이크만 뵈르비카의 매력을 파헤쳐본다.

현대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곳

다이크만 뵈르비카(Deichman Bjørvika)의 명칭에서 뵈르비카는 노르웨이 오슬로 센트럼(Sentrum) 자치구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 다이크만은 노르웨이의 사업가이자 도서관 수집가인 칼 다이크만(Carl Deichman, 1705~1780)의 이름에서 따왔다. 칼 다이크만이 사망한 1780년 당시 그의 소장품은 원고, 졸업장, 지도, 골동품, 동전 컬렉션 외에도 6,000여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장서를 시에 기증

- 1) 벽체 또는 기둥에서 튀어나온 ‘보’로서,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
- 2) 한 층의 일부 중턱에 만든 낮은 중간층을 뜻한다



02

했고, 이 컬렉션과 추가 기부 장서로 오슬로 공공도서관인 ‘다이크만 도서관’이 초기 기반을 형성하며 1785년에 개관했다.

다이크만 도서관은 원래 오슬로 전역에 총 2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래된 건물의 책들을 새로운 도서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역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다. 도서관에서 수천 권의 책을 꺼내어 새로운 도서관으로 옮기는 학생들이 오슬로 거리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 개관에 대한 흥분은 도시 전체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탄생한 도서관이 바로 지금의 ‘다이크만 뵈르비카’다. 2020년 6월 18일에 새롭게 문을 연 다이크만 뵈르비카는 연면적 1만 9,600㎡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구성된 6층짜리 대형 건물이다. 지하와 1층, 3층, 5층에는 각각 중이층(Mezzanine)²⁾이 있다. 총 건축비용은 25억 크로네(약 3,153억 원)가 소요되었다. 칼 다이크만의 원본 컬렉션은 여전히 도서관에 남아있으며 잘 보존되어 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혁신 도서관

차가운 외관과 달리 도서관 내부는 층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입체적으로 인상적인 광경이 펼쳐지며 층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먼저 1층

- 01 도서관 내부는 ‘100개의 색상(100 colors)’이라는 아름다운 설치 예술과 현대 건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 02 도서관에서 오슬로 피오르드 해변의 멋진 뷰를 볼 수 있다



03

로비에서 이용자를 맞이하는 것은 예술가 라스 램베르그(Lars Ramberg, 1964~)의 조명 설치물 ‘브레인스토름(Brainstorm)’이다. 이 조형 설치물은 손으로 붙여 만든 금색, 노란색, 반짝이는 흰색으로 구성된 400m 길이의 유리관으로 속에는 네온 가스가 채워져 있다. 또 1층에는 혁신적인 자동도서분류시스템과 안내데스크, 커피와 식사를 겸할 수 있는 센트로파(Centropa) 레스토랑이 있다.

중 1층에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여기서 신문과 잡지를 읽을 수 있다. 지하로 내려가면 보존서고와 200석 규모의 큰 강당과 영화관이 있다. 2층은 어린이와 소설을 위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식사 공간과 유모차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어 이용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3층은 창작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다. 재봉틀, 3D프린터, 포토/VHS 디지털링, 대형프린터, 팟캐스트/사운드 스튜디오, DJ 스테이션, 비닐절단기, 그래픽 스테이션과 같은 장비들이 갖춰져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4~5층에는 다국어 컬렉션, 스칸디나비아 예술, 그리고 미래 도서관 섹션이 있다. 존(Zone)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어느 곳이든 학습 공간과 독서 공간이 된다. 즉 어디서든 노트북을 꺼내 작업하거나, 책을 읽기 좋은 편하고 아늑한 장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이외에도 벌집 모양의 천장, 다양한 편의시설과 활기 넘치는 소셜 공간, 어린이를 위한 인터랙티브 비디오 설치물,

- 03 1층 로비에는 ‘브레인스토름’ 조명 설치물이 이용자들을 맞이한다
- 04 5층 자료실 모습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학습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다
- 05 미래 도서관(Future Library) 프로젝트 공간 입구 모습이다

도서관 여행자

곳곳에 흩어진 서가 등 특별한 공간으로 가득하다. 공간을 향유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이들로 가득한 다이크만 뵘르비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생동감과 활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다이크만 뵘르비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아이콘은 프랑스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 에마누엘 무로(Emmanuelle Moureaux, 1971~)의 ‘100개의 색상(100 colors)’이다. 다채로운 색상의 글자로 이루어진 화려한 무지개 그라데이션 느낌의 설치 예술이다. 약 1만 개의 알파벳이 3층과 5층 사이의 중앙 아트리움에 100개의 색상으로 8m 높이로 매달려 찰랑찰랑 흔들린다. 다양한 색을 활용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도서관을 한층 아름답게 창조한다.

미래 도서관(Future Library) 프로젝트

이외에도 세계의 이목을 끈 프로젝트 공간이 있다. 스코틀랜드 예술가 케이티 패터슨(Katie Paterson)이 만든 예술 프로젝트 ‘미래 도서관(Future Library)’이다. 2014년부터 매년 한 명의 저자가 타임캡슐에 원고를 제출한다. 2014년에는 캐나다 소설가 겸 시인인 ‘마가렛 애트우드’, 2015년에는 영국 소설가 ‘데이비드 미첼’, 2016년에는 아이슬란드 시인 ‘손’, 2017년에는 튀르키예 작가 ‘엘리프 샤팍’ 등 세계 유명 작가들에 이어, 2018년에는 한국 작가 ‘한강’이 참여했다. 100년에 걸쳐 총 10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 예술 프로젝트의 작품들은 2114년에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노르웨이 오슬로의 노르드마르카 숲에 1,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04



책을 보관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장소

다이크만 뵘르비카는 다양한 언어로 된 풍부한 책과 영화 및 음악 컬렉션 약 50만 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서명, 저자명, 주제 단어, 그리고 듀이 코드로 도서를 찾을 수 있다. 도서는 듀이십진법에 따라 000부터 900번대까지 분류되어 있는데 논픽션 도서들은 주제 코드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픽션과 어린이책들은 저자명 순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실내 PC와 전자책, 전자오디오북, 필름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앱인 Filmbib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 또 프레스리더(PressReader) 앱을 통해 70개국 7,000종의 신문과 잡지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다이크만 뵘르비카는 2021년 8월 19일 국제도서관협회 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에서 최고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이콥 라크스(Jakob Lærkes) 심사위원장은 “국제 심사위원단은 환경 인식과 건축적 감각을 결합한 건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도서관은 첨단 기술 솔루션을 통합한 책과 독서를 위한 새로운 천국이다. 다이크만 뵘르비카는 도서관이 마을과 도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이콥의 말처럼 다이크만 뵘르비카는 현대 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모습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도서관으로서 방대한 도서 컬렉션뿐만 아니라 대중을 끌어들이도록 설계된 영화관, 게임 구역, 미디어 작업장, 라운지, 그리고 세련된 레스토랑이 있다는 점과 음악 도구와 악기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서관과



05

다른 특별함을 잘 보여준다.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고 종일 머무를 수 있는 무료 문화 허브이자 모두를 위한 모임 공간인 다이크만 뵘르비카는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선물 같은 장소이며,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지 않을까? 📖

【조금주】

도서관 건립 컨설팅, 도서관 운영자문, 사서 교육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 라이브러리(Next Library)>의 대표. 틈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훌쩍 배낭을 짊어지고 그곳들을 찾아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2020) 등을 집필했다.



여행 더하기

1

노르웨이 오슬로 공공도서관 다이크만 뵘르비카

- 📍 Anne-Cath, Vestlys plass 1, 0150 Oslo, Norway
- 🕒 월~금 오전 8시~오후 10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6시
- ☎ +47-23-43-29-00

1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형상의 문화의 전당
- 📍 Kirsten Flagstads Plass 1, 0150 Oslo, Norway
- 🕒 월~토 오전 11시~오후 4시
일 낮 12시~오후 4시
- ☎ +47-21-42-21-21

여행 더하기

2

몽크 박물관

- 몽크의 다양한 작품을
순환 전시하는 전문 미술관
- 📍 Edvard Munchs Plass 1, 0194 Oslo, Norway
- 🕒 일~화 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 오전 10시~오후 9시
- ☎ +47-23-49-35-00

과거를 모아 현재를 이야기하는 도서관

글 박미숙 사진 화도진도서관, 파주중앙도서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다. 이 분류법은 모든 지식 분야를 아홉 개(100~900)로 나누고,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거나 특정한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료는 총류(000)로 분류한다. 여기서 '090' 주제가 '향토자료'에 해당한다. 보통 '향토'라고 하면 시골 풍경이나 도시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지만, 도서관은 향토자료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모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고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서관을 만나보자.



향토개항문화자료관 내부 모습

인천 개항의 역사를 담은 화도진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화도진도서관(이하 화도진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로 인천의 개항기 역사와 생활상을 사진 자료, 신문 기사, 도서, 엽서, 팸플릿 등을 통해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 외에도 개인 소장자, 고서 취급서점,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통해 향토 및 개항 관련 자료를 구매하여 자료의 질을 높여왔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향토·개항 문화자료' 주제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토개항문화자료관'과 '향토개항문화자료전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화도진도서관은 인천시문화재자료 제20호 《인천해관문서》부터 1931년에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경제 정보서 《인천향》 등 소중한 자료를 포함하여 일반자료 1만 1,000여

권과 비도서 1,700여 종을 소장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및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화도진도서관은 단순히 자료를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탐구생활'이라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사서들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향토문화유적답사'와 '향토사진 순회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천 시민들과 함께 지역 역사를 체험하고 공유한다. '인천학 시민강좌'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인천의 역사를 다루기도 하며, '내 인생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개인의 역사를 마을과 지역 역사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화도진도서관의 사례는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지역 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향토사진 순회 전시



향토자료 전시 모습

기억을 역사로 만드는 파주중앙도서관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져 가는 파주의 기억들이 모이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파주중앙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공동체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파주에서 살아온 개인들의 역사를 수집·분석하고 자료화하여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역 역사를 해석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지역 기록에 대한 파주중앙도서관의 활동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해에 파주중앙도서관이 진행한 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발굴된 12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은 파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채록하여 2019년에 《파주에 살다, 기억하다》라는 기록물을 발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파주중앙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역사를 보존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개인의 인생사가 지역의 역사가 된다’는 생각을 품은 파주중앙도서관은 매년 ‘파주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인 이야기를 공공의 기록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자료들은 디지털화되어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디지털기록관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공유된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기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획 전시형태로 구성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파주중앙도서관은 ‘시민기록자’를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기록학교’와 ‘구술채록을 통한 기억



《6.25 전쟁과 파주여성》기록집과

《민통선과 함께 살아온 임진강변 탄현 6개 마을》기록집

전달자’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지역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과정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록을 기획하는데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는 《6.25 전쟁과 파주여성》과 《민통선과 함께 살아온 임진강변 탄현 6개 마을》이라는 기록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러한 파주중앙도서관의 활동은 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하여 서비스할 것인가 고민을 던져 주기도 한다.

과거의 삶이 모여 현재의 삶을 바꾼다

도서관의 향토자료는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인다. 자료의 보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들을 어떻게 시민들과 만나게 할 것인가 도서관 고민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서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과거의 삶을 단순히 지나간 것으로 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의 연결점을 찾아내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를 기대해 본다. 📖

| 박미숙 |

고양시립 일산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에 ‘그림책으로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도서관에 간 외계인》,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손바느질로 만나는 그림책 주인공》 등이 있다.



제1회 파주기록물 수집 공모전 평가 모습

공감을 펼치다

공감의

도서관

34 북데이터

풍요로운 요리와 맛의 향연
요리 관련 분야 대출 동향

36 오늘의 만남

맛으로 그리는 음식의 세계
요리사 김동기

44 고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와 괴물 고래
허먼 멜빌 《모비 딕》

40 K-인문학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생망 시대 현재의 소중함

48 오감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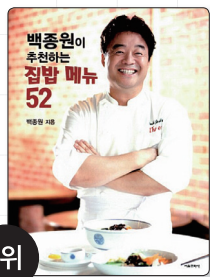
촉각과 청각이란 감각에 대하여
김보영 《다섯 번째 감각》

풍요로운 요리와 맛의 향연

요리 관련 분야 대출 동향



생활요리 인기대출도서



1위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
백종원 지음 | 서울문화사 | 2014



2위

진짜 기본 요리책:
진짜 쉽~고 진짜 맛있고 진짜 정확한
기본 레시피 306개
수퍼레시피 지음 | 레시피팩토리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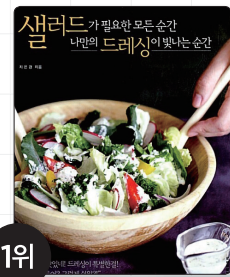
3위 2~11세 아이가 있는 집에 딱 좋은 가족밥상
김정미 지음 | 레시피팩토리 | 2012

4위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4
백종원 지음 | 서울문화사 | 2016

5위 다정 선생님의 반찬 수업
최정화 지음 | 중앙북스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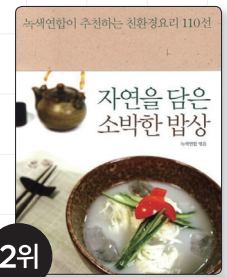


건강요리 인기대출도서



1위

샐러드가 필요한 모든 순간
나만의 드레싱이 빛나는 순간
지은경 지음 | 레시피팩토리 | 2012



2위

자연을 담은 소박한 밥상
녹색연합 지음 | 북센스 | 2005

3위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스님의 약보다 좋은 사찰음식 이야기
선재 지음 | 불광출판사 | 2011

4위 자연 그대로 먹어라:
무주농부의 자연밥상 이야기
장영란 지음 | 김광화 사진 | 조화로운삶 |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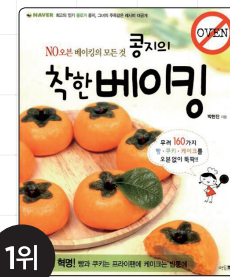
5위 송학운&김옥경의 몸을 살리는
자연식 밥상 365
김옥경 지음 | 수작걸다 | 2015

최근 1년간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생활요리 도서는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가 차지했다. 가족을 위한 기본 집밥 요리가 큰 인기를 얻었다. 건강요리 분야는 《샐러드가 필요한 모든 순간 나만의 드레싱이 빛나는 순간》이 인기대출도서로 선정되었다. 신선한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지속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홈카페, 집밥이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한식처럼 익숙한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는 요리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요리를 못하더라도 책 속 레시피와 완성된 음식 사진을 보고 그 맛을 상상해 보는 것은 요리책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킨 요리책은 무엇일까? 요리 키워드로 분석한 최근 1년간 '요리 관련 분야 대출 동향'을 함께 알아본다.

자료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분석기간 2022. 07. 01~2023. 06. 30.

홈베이킹 인기대출도서



1위

콩지의 착한 베이킹:
No 오븐 베이킹의 모든 것
박현진 지음 | 멘토프레스 | 2008



2위

버터 계란 없이 만든 채식 베이킹:
두유, 두부, 바나나, 식물성 오일로 만든
건강식 홈베이킹
박지영 지음 | 청출판 | 2009

3위 쉽게 따라하는 오븐엔조이 홈베이킹
미애 지음 | 미호 | 2008

4위 홈베이킹 백과사전:
한 권으로 끝내는 정확하고 친절한
빵·케이크·쿠키
브레드 가든 지음 | 웅진리빙하우스 | 2008

5위 미니오븐으로 시작하는 홈베이킹:
초코쟁이·밍킹의 달콤 친절한 레시피 100
정지희, 민경량 지음 | 미디어월 | 2010

차/술/음료 인기대출도서



1위

I love coffee and cafe:
친절한 바리스타C 커피를 부탁해
이동진 지음 | 동아일보사 | 2008



2위

커피 은찬의 커피선생 이동진과 함께하는
바리스타 따라잡기
이동진 지음 | 엠북스 | 2008

3위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
이원복 지음 | 김영사 | 2008

4위 커피의 거의 모든 것
조미라, 하보숙 지음 | 강혜원 그림 | 김학리 사진 | 열린세상 | 2010

5위 커피홀릭's 노트:
집에서 즐기는 스페셜티 커피 레시피
박상희 지음 | 예담 | 2008



최근 1년간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홈베이킹 도서는 《콩지의 착한 베이킹》이었다. 집에서 오븐 없이 혹은 건강한 식재료로 빵, 케이크, 쿠키 등을 만들려는 욕구가 보인다. 차/술/음료 분야는 《I love coffee and cafe》가 인기대출도서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카페 강국답게 커피 문화와 커피 레시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다. ☕



| 김동기 |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국제 요리대회를 나가는 몇 안 되는 현직 요리사. 전 세계 모든 요리대회를 다 참가하려고 20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요리대회에 도전하고 있다. 레시피를 개발하고 음식 칼럼을 쓰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셰프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셰프, 맛으로 세계를 그리다》를 썼다.

맛으로 그리는 음식의 세계 요리사 김동기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비스트로’에서 ‘특1급 호텔’까지 다양한 곳에서 경력을 쌓아 온 국가대표 요리사 김동기. 지난해 그는 예비 셰프들을 위해 자신만의 요리 내공과 핵심 조언을 가득 담은 책을 펴냈다. “셰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기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김동기는 레시피 개발에도 열중하며 요리연구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간다. 사람들에게 맛있는 일상을 선물하는 요리사 김동기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본다.

0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사 김동기입니다. 2015년 프랑스 보퀴즈 도르(Bocuse d'Or) 요리대회 국가대표, 2016년 독일 요리 올림픽 국가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두 레스토랑에서 각각 오너 셰프와 수석 셰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음식 칼럼니스트로 5년째 활동하며 음식 칼럼을 기고하고 있고, 네이버 푸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레스토랑 창업 및 메뉴 개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며 전국에서 올라오는 미래 대표님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쉬는 날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 후배들과 함께 전 세계 요리대회에 출전하며 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2

셰프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화가를 꿈꾸며 화실에서 문하생으로 생활도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오른손을 다치는 바람에 섬세

한 작업이 어려워졌고 학창 시절부터 가졌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포기한 꿈에 대한 절망보단 앞으로 뭘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주방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식당, 주점 같은 곳을 차려도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도시락집, 학교 급식, 돈가스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뒤늦게 요리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요리에 열정적인 친구들을 보며 저도 진중하게 제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3

두 레스토랑에서 수석셰프와 오너셰프로 일하고 계세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결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많은 일이 많아지면 그만큼 덜 자고, 덜 쉬고 더 집중하는 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두 곳의 레스토랑은 혼자 관리할 수 없어서 한 곳은 제 배우자이자 요리사인 안주연 셰프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저를 존중해주는 대표님과 훌륭한 후배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에 두 곳 모두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의 일은 같습니다. 메뉴 개발과 식자재 관리, 그리고 손님에게 최상의 상태로 음식이 나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 수석 셰프는 음식 자체와 서비스에 포커스를 두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주방 팀을 이끌어갑니다. 오너 셰프는 주방 외에도 레스토랑 경영 업무를 전반적으로 봐야 합니다. 주방과 홀, 서비스, 사소한 소모품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04

프랑스 요리는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요리 학교에 다니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리들을 접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 호텔 입사를 목표로 열심히 했는데도 취업이 잘 안 돼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전전하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 계열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며 프랑스 요리를 접하게 됐어요. 강남 호텔은 프랑스 셰프가 상주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파테, 테린, 리에트, 비프 부르기뇽 같은 요리를 배우게 되었고, 처음 관심 있었던 이탈리아 요리에서 프랑스 요리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프랑스 요리대회인 보퀴즈 도르(Bocuse d'Or) 요리대회에 국가대표로

도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 요리를 공부하게 되었죠. 길고도 험했던 팬데믹 때는 《에스코피에 요리책》이라는 120년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100개의 프랑스 전통 요리를 만들어 블로그에 기록하며 한 번 더 프랑스 요리의 매력에 빠져 깊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05

세계 요리대회에 다수 출전해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많은 메달을 받으셨어요.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엔 자기 계발을 위해, 다음엔 좋은 성적을 위해, 어느 순간 성적이 의미가 없어졌을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요리사들이 국제조리사연맹인 WACS에서 주관하는 요리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출전하는 선수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내 돈 내고 해외로 나가는데 결과는 불확실하니 굳이 도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중에 스스로 성공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낼 수 있을 때,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확실한 요리대회에 도전함으로써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더 생기게 되면 제 다음 국가대표들은 다른 나라처럼 기관이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 온전히 요리에 집중하는 상황을 만들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걸 선배로서 지켜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06

음식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하셨을 텐데, 평소에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주로 한식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백반집, 노포, 대를 잇는

집들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먹으러 다닙니다. 프랑스 요리를 하는 요리사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 동네 음식점들을 소개하며 그 음식점의 역사나 특징과 함께 제 생각을 녹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오래된 백반집을 자주 찾는데 백반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점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반찬, 국과 밥까지 저렇게 팔면 남는 게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감 가는 식당들은 이유는 적고 손이 많이 가서 젊은 분들이 운영을 꺼리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 음식점들을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제 글이 그분들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글을 쓰지만 사실 홍보보단 기록의 목적입니다.

07

셰프 겸 요리연구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리사로 성장하는 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많이 썰어보고 많이 만들어 보고 많이 먹어보면 됩니다. 상당수의 요리사들은 이 간단한 걸 잊은 채 일만 하기도 합니다. 일은 일이고 공부는 공부죠. 직장에서 요리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직장 밖에서도 요리와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학생 때를 생각하면 학교 공부 말고 학원과 집에서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걸 보면 당연합니다. 저도 자기 전에 휴대폰을 합니다. 음식사진을 수집하고 메모장에 글을 쓰고 머릿속을 스쳐 가는 레시피를 기록해요. 어떨 땐 운전보단 일부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좀 더 많은 요리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특히, 글 쓰는 걸 추천해요. 글은 사라지지 않기에 나중에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08

셰프로써 갖고 있는 자신만의 요리 철학이 있다면요?

‘내가 아는 어려운 맛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자, 분식집 아주머니에게도 배울 게 있다.’ 요리사로서 점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부분입니다. 요리사들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서 요리사라는 직업의 의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고 요리 한 접시의 가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에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기 셰프가 그동안 출간해온 다양한 요리 책들

09

신간 《셰프, 맛으로 세계를 그리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만화가가 꿈이었다 보니 새로운 책의 제안은 제안 자체만으로도 참 설레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쓰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리를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좋은 곳으로 유학도 못 가봤고 취업도 변변치 못해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겨우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요리사의 삶도 요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저의 20대와 30대의 요리사 생활을 쓰게 됐습니다. 처음 호텔에서 일했을 때, 처음 요리대회에 나갔을 때, 내 가게를 차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생생한 경험을 담았고요. 요리사로 성장하는 법과 요리사가 하는 일들, 그리고 메뉴를 구성하는 법 등 요리사의 모든 것에 대해 최대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10

셰프를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독자들의 반응, 후기도 궁금합니다.

요리는 죽기 전까지 배우는 분야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게 성공의 과정과 토대가 됩니다. 처음부터 셰프가 될 순 없으니 조금해하지 마세요. 마흔 살의 김동기는 서른다섯의 김동기, 서른의 김동기를 토대로 지나간 노력의 산물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책을 펴고 요리 사진을 찾고 도마를 꺼내 재료를 썰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간은 창피하지만 어쩌면 제 자서전입니다. 손을 다쳤던 이야기나 막내 때 혼났던 이야기도 들어 있거든요.

자기도 손을 다쳐 요리하는 게 힘들다고 한 독자의 메시지에 진심으로 응원하는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학교 특강을 갔을 때 책을 사물함에 놓고 왔다고 등쪽에 사인해 달라는 학생 때문에 모두 웃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1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9월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하나 추천해주세요.

명절 때는 과일을 채운 로스트 치킨을 추천 드립니다. 닭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그만큼 많이 먹는 식재료인데요. 오븐에서 막 나온 따끈따끈한 로스트 치킨은 배달용 치킨이랑은 또 다른 감성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먹기 좋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해요. 치킨은 깨끗이 씻고 속에 사과와 토마토, 파프리카를 채워 주고 껍질에 소금과 후추, 버터를 발라 150도 오븐에 1시간 정도 천천히 구워 주면 됩니다.

12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024년 독일 요리 올림픽을 기준으로 2번 더, 제가 50세가 되기 전까지 독일 요리 올림픽, 룩셈부르크 요리 월드컵을 후배들과 출전하고 그 후엔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요리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지금 말고 있는 레스토랑도 더 많은 분께 사랑받을 수 있게 메뉴 개발에 정진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후 요리대회의 메뉴들을 접목시켜 일반 손님들께 대접할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2년에 1권은 책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 브런치, 유러피언 가정식 요리책이나 우리 음식 문화와 관련된 책을 써 보고 싶어요. 또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즐겁게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고, 마지막으로 노년엔 가족과 함께 재료비나 경영 등 금전적 부담 없이 요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교외에 차려 해보고 싶은 요리를 하며 글을 쓰고 기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김동기 셰프가 만든 ‘파프리카 처트니를 올린 버터에 구운 연어와 컬리플라워, 버섯 크림소스’



요리사 김동기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생망 시대 현재의 소중함

글 정덕현 사진 네이버웹툰, 이혜,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른바 ‘이생망’이라 불리는 정서가 시대의 공기처럼 떠다니는 현재다.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생겨난 ‘농담’이 섞인 자조적인 정서다. 결국 태생만이 그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청년들은 이 삶을 바꾸는 건 이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라고 자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서를 담은 판타지들이 최근 콘텐츠에는 넘쳐난다. 웹소설과 웹툰에 부쩍 늘어난 ‘회귀물’이 대표적이다. 산경의 웹소설로 작년 드라마화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재벌집 막내아들> 같은 작품이 그 사례다.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몰리고 그 순간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지금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인생 리셋’ 판타지를 건드린다. 그런데 만일 실제로 힘겨운 이생 대신 내생을 기억하는 삶이 가능하다면 그건 행복하기만 한 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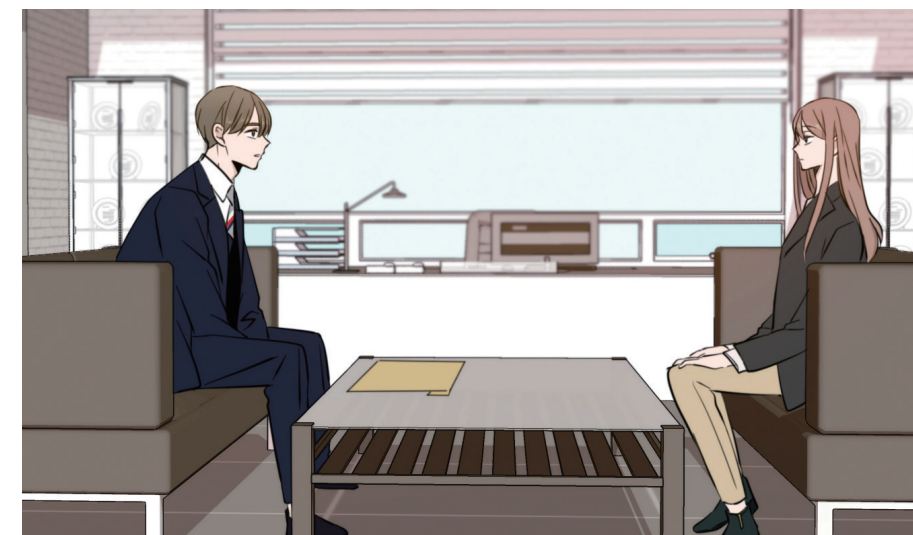
{ 전생을 기억하는 존재가 담은
새로운 이생에 대한 관점 }

그런 점에서 이혜 작가의 웹툰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이례적인 관점을 담은 작품이다. 이생망 시대에 이 작품은 과거와 내생이 아닌 ‘이번 생’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19회 차 인생 반지음(신혜선)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8회 차 인생에서 윤주원(김시아)으로 살았다. 무려 18번이나 죽고 다시 살았으니 삶 자체가 무료할 정도로 집착이 있을 리 없는 이 인물 앞에 문서하(정현준)라는 아이가 나타나 가슴을 뒤흔든다. 그렇게 어린 나이이지만 문서하와 마음을 나누던 중, 교통사고로 윤주원은 사망하고 반지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는 전생의 약속대로 문서하를 찾아간다. 그간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반지음의 이생의 삶은 변화한다. 전생에 안타깝게 헤어졌던 인연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그때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이생에 나눠보려 한다.

누구나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 속에서 전생과 이생 그리고 내생이 이어진다는 이 작품의 세계관은 불교가 윤회설에 담고 있듯이,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는 면이 있다. 이생망 정서에 들어 있는 것처럼, 이번 생이 망했어도 다음 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 이별했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위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 위로의 지점에서 머물지 않고 다음 질문을 이어간다. 과연 반지음 같이 전생을 기억하는 존재가 경험하는 생의 반복은 그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지 않다. 그는 이 무한 반복하는 삶에서 별다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기 어렵게 된다. 죽는다고 해도 또 태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삶이 어떤 이생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삶의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료하게 살아왔던 반지음에게 변화가 생겨난다. 그건 19회 차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아픔만 바라보던 그가 타인의 아픔을 보게 되면서다. 자신이 죽고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한 채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성인이 된 문서하(안보현)를 보며 반지음은 생각한다. ‘여러 번 사는 동안 나의 아픔만 선명했어. 이번 생은 달라. 내 죽음 뒤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의 슬픔과 마주하게 되는 이상하고 신선한 열아홉 번째 내 인생.’ 결국 이 작품은 전생에서 이생으로 또 이생에서 내생으로 이어지는, 무의미해 보이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이생에서 만나는 이들과 나누는 특별한 관계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생도 내생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생에서 현재 만들어 가는 소중한 관계와 경험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19회 차 인생을 살게 된 반지음은 문서하가 전무로 있는 MI호텔에 취직한다

전생도 내생도 존재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생에서 현재 만들어 가는
소중한 관계와 경험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인연과 전생의 기억이 갖는 무게

<이번 생도 잘 부탁해>는 전생을 기억해 무려 19회 차 인생을 사는 존재가 던지는 위로를 담는다. 그는 존재 자체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들을 위로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누군가와 인연이 그저 이생에서 잠깐 만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엮어진 관계로부터 이어진 거라는 무게를 던진다.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 늘 가까이 있어서 별 소중함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조차 새삼스러운 인연으로 바라보게 된다. 전생에 어찌면 이들은 나의 부재에 눈물 흘리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래도록 아파했던 이들이었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반지음이 전하는 위로가 가능한 건, 다름 아닌 ‘기억’ 때문이다.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반지음이라는 판타지적 존재는 전생을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연이 가진 소중함과 무게감을 이야기해줄 수 있다.

전생에 어찌면 이들은 나의 부재에
눈물 흘리고 그 상처 때문에 오래도록
아파했던 이들이었을 수 있으니 말이다.




반지음의 정체를 알게 된 문서하가 놀이공원 회전목마 앞에서 반지음과 재회한다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살아가야 그 좋은 인연들이 모여
보다 나은 내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억은 지워지지만,
그래서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생의 기억, 이생의 인연

그런데 반지음이 가진 이 전생을 기억하는 건 축복받은 ‘능력’일까 아니면 그에게 내려진 ‘저주’일까. 처음에는 능력처럼 보이던 이 기억은 갈수록 그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걸 이 작품은 보여준다. 첫 번째 생을 떠올리게 된 반지음은 자신이 전생을 기억하게 된 것이 그때 겪은 참혹한 비극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다. 사랑했던 언니와 자신을 살해한 자를 향해 그는 이런 저주를 날린다. “이 원통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다. 백년이고 천년이고 다시 태어나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이처럼 내생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가 된다.

불교에서 환생을 이야기할 때,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종의 신의 축복처럼 다가오는 일이다. 즉 전생을 기억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생의 삶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환생의 서사는 이렇게 윤회하는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생이라는 걸 말해준다.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살아가야 그 좋은 인연들이 모여 보다 나은 내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억은 지워지지만, 그래서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 콘텐츠 내용은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의 줄거리를 포함하며, 원작 웹툰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지음은 과거 교통사고로 트라우마를 겪는 문서하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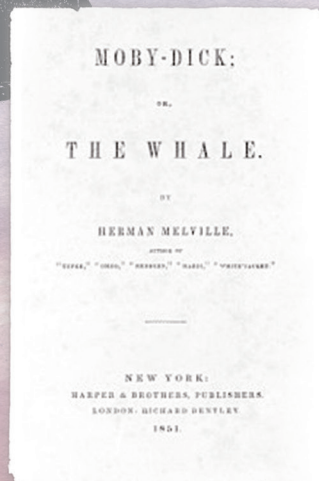
|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방송 활동, 강연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 저서로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팠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다.

이상한 변호사와 괴물 고래

허먼 멜빌 《모비 딕》

글 김규범 사진 위키피디아



Moby-Dick;
or, The Whale



2022년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머릿속이 온통 고래로 가득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래’에 대한 애착을 보이는 인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고래 지식’을 자신이 좋아하는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고래 지식’은 소설 《모비 딕(Moby-Dick; or, The Whale, 1851)》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생각해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괴물 고래 모비 딕’의 닮은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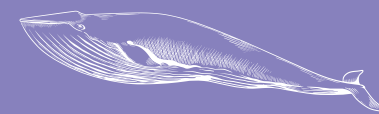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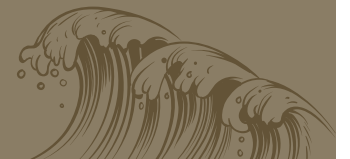
때는 19세기 중반 고래 사냥(포경업)의 중심지였던 미국 동부 해안.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 이스마엘은 고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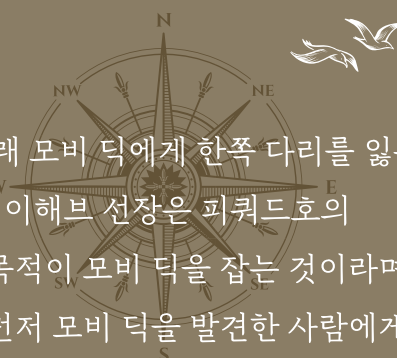
#2



이스마엘은 항구 근처에서 작살잡이 퀴케그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둘은 함께 에이해브 선장이 이끄는 포경선 ‘피쿼드호’의 선원이 된다.



#3



향유고래 모비 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에이해브 선장은 피쿼드호의 항해 목적이 모비 딕을 잡는 것이라며 가장 먼저 모비 딕을 발견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한다.



#4



선장의 말에 선원들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피쿼드호는 모비 딕을 무사히 잡을 수 있을까?



주인공

이스마엘

바다를 동경한 청년. 퀴퀘그와 함께

피쿼드호의 선원이 되어 고래잡이 사냥에 나선다.

모비 딕과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퀴퀘그

포경선 작살잡이. 이스마엘과 친구가 되어

피쿼드호를 타고 고래잡이 사냥에 나서지만,

이스마엘을 구하다 사망한다.

모비 딕을 찾아서

- 인물관계도 -

에이해브 선장

포경선 피쿼드호의 선장.

모비 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고 복수하기 위해

모비 딕을 뒤쫓다가 목숨을 잃는다.

Moby Dick



모비 딕

거대한 흰 향유고래. 다른 고래들과 달리

매우 교활하다. 수많은 고래잡이들과 싸웠으며,

에이해브 선장의 한쪽 다리를 잃게 한 고래다.

피쿼드호 사람들

Ishmael

Queequeg

Captain Ahab

Starbuck

Stubb

Flask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작품 읽기 준비 운동_고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모비 딕》은 미국의 작가 ‘허먼 멜빌(Herman Melville, 1819~1891)’의 1851년 작 소설로 장대한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고래와 인간의 사투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서 기준으로 635페이지(20만 6,052자)나 되는 많은 분량의 대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긴장감 넘치는 서사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 135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된 작품에서 ‘모비 딕’이라는 고래와의 싸움에 할애된 분량은 달랑 3개 장뿐입니다. 나머지는 줄거리와 별로 관계없는 ‘고래 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래의 어원, 종류, 고래가 물을 뿜는 이유 등 고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담아놓은 듯한 멈출 줄 모르는 ‘설명’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초판 판매량은 달랑 12권에 그쳤고, 영국 도서관에서 ‘소설’이 아닌 ‘고래학’으로 작품을 분류해버리는 웃픈 일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간 후 70년, 작가 사후 30년이 지난 1921년에 이르러 작품의 재평가가 시작되어 문단과 학계,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해양문학의 정수’라 불리며 미국 문학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줄거리 알아보기_고래를 향한 인간의 탐욕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미국의 중요 산업 중 하나였던 ‘고래 사냥(포경업)’의 중심지, 동부 해안에서 시작합니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이스마엘’은 고래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인물로, 우연히 항구 근처 여관에서 험상궂은 외모의 남성 ‘퀴퀘그’를 만나게 됩니다. 퀴퀘그는 폴리네시아인 작살잡이로 이스마엘과 스타일은 매우 달랐지만, 이스마엘과 대화가 잘 통했고, 함께 ‘포경선’에 탑승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에이해브 선장’이 이끄는 포경선 ‘피쿼드호’의 선원이 되어 모험을 시작합니다. 피쿼드호는 미국을 떠나 넓은 바다 구석구석을 항해하면서 ‘향유고래’를 포획하고, 갑판 위에서 바로 해체해 ‘고래기름’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배에는 주인공 이스마엘과 작살잡이 퀴퀘그, 선장 에이해브, 이성적인 성격의 1등 항해사 ‘스타벅’, 낙천적인 성격의 2등 항해사 ‘스텝’, 전투적인 성격의 3등 항해사 ‘플라스크’, 그리고 선장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유령 같은 선원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수평선만 보이는 지루한 항해를 수십 일째 이어가던 어느 날, 한쪽 다리에 고래 뼈로 만든 의족을 달고, 음침한 표정을 한 선장 에이해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선원들을 모아 놓고 모비 딕이라는 고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 “모비 딕은 거대한 흰고래로, 지금껏 수많은 포경선을 침몰시킨 악명 높은 녀석이며, 몸은 고래잡이들이 던진 작살과 흉터로 가득한 괴물이다.” 설명을 마친 선장 에이해브는 모비 딕이 자신의 한쪽 발을 먹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는 피쿼드호의 항해 목적은 모비 딕을 잡아 복수하는 것이니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연설합니다. 그러자 1등 항해사 스타벅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자신은 집안 대대로 고래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만 고래를 사냥할 뿐, 복수 때문에 목숨을 걸지는 않겠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선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에이해브가 그의 말을 무시하며 “가장 먼저 모비 딕을 발견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라며 뚝대에 금화를 박아 넣자 선원들은 선장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항해가 이어지던 몇 개월 사이 이스마엘은 고래를 잡아보는 했지만, 항해의 목적이 모비 딕이었기에 다들 고래잡이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이 여러 차례 에이해브를 만류했지만 그는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포경선을 만나면 모비 딕을 봤다는 질문부터 던졌고, 항해 도중 아들이 타고 있던 보트가 실종되었다며 도움을 청해온 ‘레이첼호’의 부탁도 모비 딕 잡기에 집중하려 거절해버렸는데요. 그즈음 퀴퀘그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퀴퀘그의 요청으로 관을 짜주게 됩니다. 완성된 관을 본 퀴퀘그는 관에 한 번 들어가 보더니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다”라며 씻은 듯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관을 일단 배 후미에 매달아 놓고 항해를 이어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에이해브가 직접 망루에 올라 모비 딕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모비 딕과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되었죠. 모비 딕은 덩치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은 녀석입니다.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3일에 걸친 싸움 끝에 에이해브는 모비 딕의 몸통에 작살을 꽂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작살줄에 걸려 바다로 끌려가 버렸고, 피쿼드호도 함께 침몰해버렸습니다. 주인공 이스마엘은 퀴퀘그의 관을

붙들고 가까스로 살아남아 바다 위에 떠 있다가 얼마 전 아들을 찾는 중이라던 레이첼호에 의해 구조됩니다.

년 이상해, 녀석은 괴물이야!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라는 우영우의 멘트는 “우영우에게 편견은 감옥입니다”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소설 《모비 딕》에 등장하는 ‘악명 높은 괴물 모비 딕’과 드라마에 등장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 우영우’, ‘편견에 사로잡힌 의뢰인’들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는 선장 에이해브를 필두로 그를 따르는 선원 모두가 모비 딕을 ‘절대불변의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일에 싸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고래를 악이라 정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주인공 이스마엘은 작품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잘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해서 다수가 내린 결정 또는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만이 옳은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우영우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다수로 인해 함부로 규정되어 ‘변호사’가 아닌 ‘이상한 변호사’라 불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편견’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이해브를 따르는 선원들처럼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입니다. 그래서인지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도 계속 설명합니다. “자폐가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을 부수려는 그녀만의 방식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에게도 《모비 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족관이라는 감옥에 갇힌 고래’, ‘편견이라는 감옥에 갇힌 우영우’ 이들에 대한 설명, 우리는 소설 《모비 딕》이 작품 분량의 대부분을 설명으로 채운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❶

| 김규범 |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인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고전 안내서 《고전의 고전》을 집필했다.

촉각과 청각이란 감각에 대하여

김보영 《다섯 번째 감각》

글 신수빈(부문디자인)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는 일은 그 자체로 낯설고 신기하고 경이롭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익숙한 감각이 SF 혹은 음악이란 요소를 만난다면 뒤집힌 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김보영 작가의 소설은 이 뒤집힌 세계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간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처럼 인간의 경험에 대해 장르가 바뀌는 경이의 무대 속으로 들어가 본다.



《다섯 번째 감각》

김보영 지음 | 아작 | 2022



인간과 클론의 교감

단편소설 <촉각의 경험>은 뇌신경학 연구소의 박사 이진우와 이 뇌신경학 연구소를 소유한 제약회사 사장 유시현, 두 주인공의 대화로 시작된다. 유시현은 자신의 클론이 꾸는 꿈을 보고 싶어 했고 이진우는 그의 제안이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한다. 사실 유시현이 뇌파공명기 구입 동의서에 순순히 사인하고 첫 번째 피험자로 나선 것은 자신의 클론이 꾸는 꿈을 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뇌파공명기는 사람의 뇌파를 다른 사람의 뇌파에 전달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기계다. 즉 이 기계를 이용하면 한쪽이 꿈을 꾸면 다른 쪽도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클론에겐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기에 절대 시각적인 꿈을 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진우와 클론이 생각을 통해 충분히 꿈을 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시현. 팽팽히 대립하던 두 사람은 ‘올해 연구소 예산 두 배 늘려주기’와 ‘사장님 방 청소하기’라는 조건을 걸고 실험을 진행한다.

클론의 꿈에 주로 나타나는 것은 둥근 물체, 원운동, 나선,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실험의 분위기가 반전된다. 클론의 꿈에서 열 살 때 돌아가신 유시현의 어머니가 나타난 것이다. 즉 역전도 현상으로 유시현의 꿈을 클론이 꾸게 된 것이다. 클론이 오염됐다고 생각한 이진우가 실험을 중단하려 하지만, 클론에 집착하는 유시현의 성화에 못 이겨 유시현의 머리에서 클론의 뇌 속으로 전선을 거꾸로 넣는 실험을 강행한다. 분명하게 클론이 유시현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클론은 행복한 꿈에 빠져든 것처럼 평화롭게 잠들었지만 이후 두 사람의 뇌파가 미친 듯이 요동친다. 잠에서 깬 유시현이 비상용 도끼로 인큐베이터를 깬 다음, 클론의 얼굴에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미친 듯이 클론을 꺼낸다. 클론은 조금씩 손을 들어 올려 유시현의 팔과 등을 더듬더니 다시 힘을 잃고 축 늘어진다.

“클론이 어떤 식으로 내 꿈을 꾸었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각입니다.”

유시현은 짧게 답했다.

“촉각이라뇨?”

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되물었다.

“그것이 클론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감각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고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손가락과 배양액을 만지작거리는 것, 그것이 클론이 알고 있었던 유일한 ‘감각’이고 ‘놀이’이며 ‘지식’이며 ‘경험’이자 ‘정보’였던 겁니다. 이런 별것 아닌 작은 움직임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다섯 번째 감각》속 <촉각의 경험> 중에서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

복제인간(Human Clone)을 줄여 클론(Clone)이라 부른다. 클론의 존재는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 등 매체를 꾸준히 접해서인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촉각의 경험> 속에서는 20년 전에 제정된 법에 의해, 클론은 정부의 승인을 얻은 기관에서만 배양되며, 유시현처럼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은 일종의 의료보험으로 클론을 하나씩 키운다. 즉, 클론은 유시현이 태어난 순간 은행에 맡겨진 채 그와 함께 자라나고 있다.

클론에겐 아무런 일체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지만, 유시현과 똑 닮은 클론은 주먹을 쥐었다가 폼다가, 손가락을 서로 비비거나 부드럽게 움직인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유시현이 클론에게 집착을 보인 것도 ‘촉각’이라는 감각을 공유했기 때문이 아닐까. 클론이 태어나 처음 만진 것은 다른 사람의 감촉이다. 클론이 경험한 이 촉각이야말로 일생 처음 접하는 강렬한 색채와 화음의 감각이다. 생애 이런 강렬한 감각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다가 의식을 잃어간 클론의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린다.



청각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 가족을 잃고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다. 바로 단편소설 <다섯 번째 감각>의 주인공 '연주'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친언니인 '세연'마저 자신의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연주는 언니의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전해 듣는다. 언니가 초능력자로 일컫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져 있다고. 그 집단은 입을 특이하고 규칙성 있게 움직이며 입을 사용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경찰은 연주마저 의심하고 있다. 연주는 유난히 감이 좋고, 입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던 언니를 떠올린다. 그리고 죽은 언니에게 온 발신인 불명의 편지를 조사하다 자기 방 우편함에만 들어 있던 술집 스티커를 발견하고 뒷면의 약도를 따라 집을 나선다.

그곳에서 연주는 언니를 알고 있다는 '윤성'이란 남성을 만난다. 그도 역시 언니처럼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연주는 언니가 윤성이 속한 밴드의 멤버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밴드는 음악을 즐기 위한 모임으로, 멤버들은 모두 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경찰이 찾던 초능력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연주가 죽은 세연과 똑같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녀에게 다섯 번째 감각인 '청각'과 '음악'에 대한 힌트를 준다. 하지만 청각에 관심이 없던 연주는 윤성을 비롯해서 자꾸만 청각의 세계로 이끄는 무리를 거부한다.

결국 연주는 손이 아닌 입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청각'과 '음악'이란 공통분모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언니가 했던 것처럼 노래를 부른다. 비로소 그녀는 주변이 온통 소리와 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꿈쩍도 않고 멈춰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귀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주위에 가득 찬 모든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손뼉 치는 소리, 환호성,
그들이 일어날 때 옷깃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
윤성이 기쁜 얼굴로 나를 껴안을 때

그의 목에서 나는 소리, 그의 옷에 달린 단추가
내 옷에 닿아 쏠리는 짝그락 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다.
내 발아래 앉아 있던 패치가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그의 작고 귀여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세상은 음악으로
가득 차 있고,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다섯 번째 감각》속 <다섯 번째 감각> 중에서-



오랫동안 인류가 잊고 있었던 제5의 감각

<다섯 번째 감각>은 교통사고로 죽은 언니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동생의 추적담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 속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인 곳이다. 만약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접했다면 소설 속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은 독자들이 의심할 만한 일말의 요소 없이 처음부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며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물로 포장했다가, 세계관을 촘촘히 넓혀나간다. 초능력자로 불리던 사이비 종교집단은 오랫동안 인류가 잊고 있었던 제5의 감각, '청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그들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했다.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세계에서 윤성이 속한 밴드 모임은 가까이해서는 안 될 부류의 집단에 속하는 게 마땅하다.

귀가 들리기 시작한 연주에게 소리는 공포와 경외감으로 다가온다. 연주는 언니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스스로 풀어낸다. 언니는 죽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냈고, 자신이 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을. 그 소리는 언니가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을 때, TV를 볼 때 들었던 그 소리였다. 그리고 연주는 그 소리가 귀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비록 주인공이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청각'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려나갈 또 다른 세계는 더욱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

함께 나누다

오늘의

도서관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일곱 번째 필사
허난설현 <연밥 따기 노래>

59 오늘의 사진관
독서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국립중앙도서관

NEWS

01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공동기획전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 전시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이 우리의 옛이야기를 주제로 도서관의 소장 장서와 극장의 공연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도서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전시는 양 기관 순회전시로 7월 31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1월 14일(화)부터 내년 3월 31일(일)까지는 국립중앙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K-컬처의 원형인 우리의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과 공연예술 기록물 등을 선보인다. 특히 조명이 꺼지면 사라지는 공연예술을 포스터, 대본, 무대디자인 도면 등 기록물을 통해 무대 밖 공간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무대에서 노래하는 옛이야기’에서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등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판소리 공연과 문학작품을, 2부 ‘무대에서 펼쳐지는 옛이야기’에서는 견우직녀, 호동왕자, 지귀 등 설화를 소재로 한 공연과 도서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3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이야기’에서는 비디오테이프, 필름 릴, 사진 앨범 등 공연예술 기록물 소개 공간으로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지식문화와 공연예술문화의 대표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이 처음으로 함께 기획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합쳐 탄생한 이번 전시는 우리의 문화가 담긴 옛이야기를 도서자료와 공연예술기록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3

02

2023년 제3차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부산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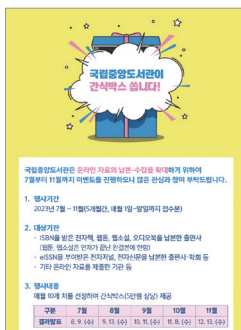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9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이틀간 부산 일대에서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부산편’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서관 이용자 및 일반 대중 3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주요 현장을 탐방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한다. 탐방코스는 ‘임시수도정부청사 → 임시수도기념관 → 비석문화마을 → 문화공감 수정(현장강연) → 초장동 제면소터 → 영도대교 → 용두산공원 → 40계단 문화거리 → 국제시장 → 구 백제병원 → 재한유엔기념공원’ 순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소설로 읽는 부산》, 《한국소설에 나타난 부산의 의미》의 저자인 조갑상 소설가를 초청했다. 강연은 ‘한국전쟁의 피란수도 부산을 걷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1박 2일 부산 탐방 전 9월 4일(월)부터 14일(목)까지 2주간 온라인 독서모임이 먼저 진행된다.

📞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37

03

국립중앙도서관이 간식박스 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국립중앙도서관이 간식박스 쏩니다!’ 이벤트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이벤트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온라인 자료(전자책,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전자저널)를 납본 또는 제출한 출판사·학회·단체·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0개 처를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간식박스를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자료는 출판 및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적시에 수집하지 않으면 소실되기 쉽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및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영구 보존하고 있다. 온라인 자료 제작 출판사 등의 사기진작과 온라인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8월 9일(수) ‘국립중앙도서관이 간식박스 쏩니다!’ 7월 당첨자를 발표했다. 7월 한 달간 온라인 자료를 납본 또는 제출하여 이벤트에 당첨된 기관은 전자책 분야에서 넥서스, 양철북출판사, 아라크네, 초록비책공방, 오디오북 분야에서는 팜파스, 오디오인 소리, 웹툰 분야에서는 레진엔터테인먼트, 전자저널 분야에서는 국제이네비해양경제학회, 전자잡지 분야에서는 한국리서치, 그리고 전자신문 분야에서 대한투데이를 포함 총 10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과 ISBN·ISSN·납본시스템(nl.go.kr/seqji)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8월 당첨자는 9월 13일(수)에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온라인자료과 02-590-0613

04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 콘텐츠
제작 공모전 개최

1900년대 초반에도 K-뷰티가 존재했을까?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을까? 이러한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하면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체 보유 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이의 활용도 증진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8월 1일(화)부터 11월 10일(금)까지 개최한다.

또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전설명회를 8월 17일(목)에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보유 데이터 및 도서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총 7편의 수상작에 국립중앙도서관장상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도서관 소개 > 도서관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25

국립중앙도서관

NEWS

05

도서관에서도 영화, 드라마 대본집 인기…
20대 희곡 분야 대출 9.6% 상승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1년간(2022. 7. 1.~2023. 6. 30.) 20대 청년들의 공공도서관 대출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의 대출데이터 9,773만 4,249건을 분석한 결과로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도담: 도서관 빅데이터를 담다》 제4호에서 볼 수 있다.

최근 1년간 문학 부문 대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관심이 가장 두드러진 주제 분야는 희곡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곡 분야 도서의 전체 대출 중 31.8%를 20대가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 상승했다. 희곡 분야 대출도서 1위는 △박찬욱, 정서경의 《헤어질 결심》이었다. 대본집을 ‘굿즈(Goods)’¹⁾처럼 여기는 새로운 트렌드가 도서관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1년간 비문학 부문 대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그래픽디자인, 도안, 포스터’ 주제 분야에 20대의 관심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디자인’ 대출도서 1위는 △오자와 야야토의 《디자인, 이렇게 하면 되나요?》가 차지했다.

20대의 공공도서관 종이책 대출량은 2021년 444만 6,184건, 2022년 445만 3,178건이며 2023년 상반기도 220만 3,676건으로 집계되어 큰 폭의 변화 없이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전자책, 오디오북과 같은 도서 매체의 이용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현상은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대들이 종이책이라는 전통 매체 외에도 다른 도서 매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30

1) 굿즈(Goods): 상품·물품 등의 뜻으로 연예인, 영화 등 대상과 관련된 파생 상품을 의미

06

K-도서관을 하나로 잇는 책이음서비스,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8월 14일(월)부터 9월 22일(금)까지 책이음서비스²⁾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책이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책이음서비스 발전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부문과 △책이음서비스 홍보 및 운영실적 성과 등의 “우수사례” 부문이다.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는 1·2차 공모심사를 거쳐 최종 3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최우수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상금 150만 원) 1편, 우수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상금 100만 원) 1편, 장려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상금 80만 원) 1편이다. 선정된 수상작은 책이음서비스 담당자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고 책이음서비스 운영과 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의 ‘도서관소개 > 도서관소식 > 공지공고’ 또는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https://books.nl.go.kr)의 ‘소식·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기술기반과 02-3483-8877

2) 책이음서비스: 국민들이 하나의 도서관 이용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서관협력서비스



07

도서관에서 탐색해보는 나의 미래
2023년 ‘응답하라! 꿈꾸는 대로’ 행사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7월에서 8월까지 2023년 ‘응답하라! 꿈꾸는 대로’ 행사를 개최했다. 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에서 독서를 기반으로 적성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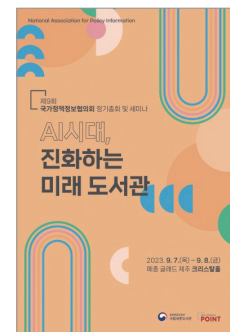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개최했던 ‘꿈꾸는 대로’를 권역별 광역대표도서관과 협업하여 여름방학 기간에 운영하였다. 7월 22일(토) 춘천시립도서관을 시작으로 △7월 29일(토) 경남대표도서관, △8월 12일(토) 전라남도립도서관, △8월 26일(토) 한밭도서관에서 총 4회 진행했다. 각 회당 30명의 중학생이 참여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꿈에 대해 소통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 위주의 일방적인 강연의 진로 캠프가 아닌 독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 주도로 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그림책 읽기로 마음 탐색, 진로적성검사 해석을 통한 나 찾기, 대학생 멘토와 함께 도서관을 탐방하며 진로 여정지도 그리기, 그리고 본인의 꿈을 실현한 명사특강을 듣고, 마지막으로 잼잼이 파티를 통해 멘토와 함께 만든 진로 여정지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발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미래를 나누는 등 값진 시간을 보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5

08

제9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국립세종도서관은 「제9회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9월 7일(목)과 8일(금) 양일간 메종 글래드 제주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한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국립중앙(세종)도서관을 거점으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보유하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이다.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가 참석 예정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협의회 사업의 경과보고와 안건심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올 한해 정책정보자원의 공유와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협력 유공자 시상식이 거행된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AI시대, 진화하는 미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로 세미나의 열기를 지킬 예정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협의회 회원기관들의 결속력이 강화되며, 도서관계의 최신 정보와 담론들이 활발히 교류되고, 사서들의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044-900-9062



국내 도서관

NEWS

01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일산호수공원 일원 개최



국내 최대 독서문화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9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고양시에서 개최된다. 연중 강연, 체험, 전시, 공연 등 6개 분야 약 100개의 독서·출판·문화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진행되는 3일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책과 연관된 공연·전시·체험·학술포럼 등 다채롭고 차별화된 독서문화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풍부한 독서 인프라를 갖춘 고양시에서 책을 사랑하는 다양한 계층이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02

신구도서관재단,
2023년 신구문화상 공모 ‘올해의 사서’



신구도서관재단은 8월 25일(금)까지 매년 도서관과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서 1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3년 신구문화상-올해의 사서’ 수상 후보자를 공모했다.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 사서로 구성된 ‘사서경선단’ 투표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10월 초 재단 누리집에 발표된다. 시상식은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10월 19일(목)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포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도서관재단(<http://shingu.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재개관

1985년에 건립돼, 대구 도심에 40년 가까이 자리잡고 있던 중앙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7월 31일(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관했다. 특히 1, 2층은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담은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으로 꾸며, 인근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폐쇄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열람실과 자료실을 통합하고,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밖에도 교육과 체험 공간을 더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은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세대와 역사를 아우르는 대구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04

경주시립도서관,
개관 70주년 맞아 기념행사

경주시립도서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아 9월 9일(토) 오전 10시 도서관 마당에서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은 팽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 7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유공자 감사패 전달, 공모전 시상, 고(故) 엄대섭 선생 기념비 제막, 올해의 도서관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도서관 마당과 인근 황성공원에선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책인(冊人) 축제’가 펼쳐진다. △아외에서 책을 즐길 수 있는 북크닉 △도서관 작업공간 △책 전시회 △중고서적 베품장터 △경주도서관 이야기 특별강연회 △과년호 잡지 배부 등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부대행사로 10월 31일(화)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도서관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올해의 도서 선정작가를 만날 수 있는 북 콘서트도 펼쳐진다.

국외 도서관

NEWS

01

영국 잉글랜드 공공도서관,
연간 34억 파운드에 달하는 가치 창출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University of East Anglia, UEA)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잉글랜드의 공공도서관들은 연간 34억 파운드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한다. ‘삶을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서관(Libraries for living, and for living better)’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에 발표된 이 연구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3만 파운드를 제공하고 ‘이스트 오브 잉글랜드(East of England)’의 도서관들이 나머지 기금을 제공했다. 연구자들은 수차례 도서관 방문과 이용자 인터뷰, 통계 분석을 통해 도서관 한 곳이 연간 100만 파운드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추산하였으며, 그 분석을 잉글랜드 내 3,000여개 도서관에 반영해 총 34억 파운드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02

IFLA 2023 정기 총회,
로테르담에서 개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8월 23일(수)과 24일(목) 양일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총회(General Assembly)를 개최했다.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대면 회의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 등에게 화상 중계되었다. 의결 역시 온라인 투표 플랫폼을 통해 현장뿐만 아니라 원격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이번 총회는 제88차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Information Congress, WLIC) 일정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8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열린 이번 WLIC에서는 엔데믹 이후 변화, 최신 현안을 다루는 세션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이자 만남의 장이 되었다.

03

미국 아칸소주 법원, 도서관과 사서, 서점,
출판사, 저자 및 독자의 자유 지지하다

지난 7월 29일(토), 미국 남부 아칸소주 티모시 브룩스(Timothy L. Brooks) 판사는 아칸소법 제372조 이하 두 개 조항에 대해 모호함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법안은 도서관과 서점이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비치한 경우, 사서 및 책임자를 형사처벌에 처하는 조항과 공공도서관에서 도서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개인이 도서의 ‘적절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이번 판결은 아칸소 지역 도서관을 비롯해 작가, 출판사, 서점, 사서, 독자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 연합이 지난 5월 25일(목)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으로, 법원은 제372조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04

스페인국립도서관,
웹 아카이브에 만화 컬렉션을 더하다

지난 7월 15일(토), 스페인 국민 만화가 프란시스코 이바네스(Francisco Ibáñez)가 별세했다. 모르타델로와 필레몬(Mortadelo y Filemón), 엘 보토네즈 사카리노(el botones Sacarino) 등 그가 탄생시킨 수많은 캐릭터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페인 사람들의 오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스페인 웹 아카이브(Archivo de la Web Española)는 그와 그의 만화 관련 온라인 자료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 스페인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BNE) 디지털 컬렉션에 이바네스 및 그가 만든 캐릭터에 대한 기사,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주요 자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원 출판물은 이미 납본 정책에 따라 스페인국립도서관에서 다큐멘터리 유산으로 관리 중에 있다.

내 마음의 문장들

마음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사랑의 시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고백한 후 수줍어하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시 한 편,
천천히 따라 쓰고 음미해보세요.
2023년 9월 함께 필사해 볼 시는
허난설현 시인의
<연밥 따기 노래>입니다.

가을날 깨끗한 긴 호수는

푸른 옥이 흐르는 듯 흘러

연꽃 수북한 곳에

작은 배를 매두었지요

그대 만나려고

물 너머로 연밥을 던졌다가

멀리서 남에게 들켜

반나절이 부끄러웠답니다

- 허난설현 <연밥 따기 노래> 전문 -

독서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저녁 바람이 서늘해진 9월은
독서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책과 함께
사색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주세요.

독서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 이다.

QR코드 링크로 접속해
내가 오늘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사진과 함께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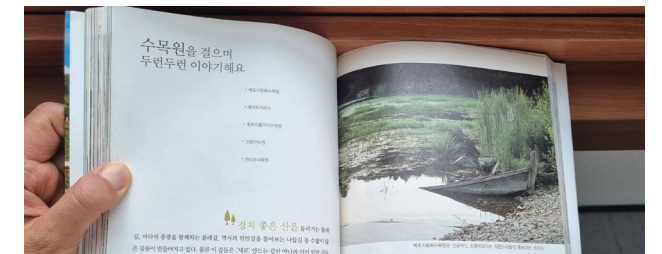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7+8월호 당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01

여름 휴가철, 나만의 도서관은 (아이와 함께하는 주말나들이) 이다.



여름방학에는 해외여행도 좋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알차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집 앞 도서관에서 서로 읽
고 싶은 책을 공유하고 육아 팁이 가득한 책을 대여해 아이와 실천에 옮
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상이 아닐까요? 아이에게 책에 대한 즐
거움을 안겨주고 싶어서 이번 여름방학도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
운 나들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민 님

02

여름 휴가철, 나만의 도서관은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이다.



작가인 사이토 다카시는 자화자
찬의 힘이라는 챕터에서 '자기 자
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
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
동과 사고를 공공 유포매개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나니까요. 우울감에 빠진
분들이 독서를 통해 힘을 되찾는
계기를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최○민 님

2023년 <오늘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조사기간 2023.09.04.(월) ~ 09.17.(일), 14일간

당첨자 발표 2023.09.25.(월) 개별통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식지 <오늘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시 추첨을 통해 총 40분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